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한인뉴스

5
2011 VOL.17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The Pride of Korea!
The Pride of
Unicorn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유니콘

Made in Korea의 자부심을

세계에 떨쳐 보이겠습니다!

Best Quality . Best Price . Best Service

Unicorn 유니콘미싱공업(주)

당신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자카르타 지점 : 021-521-2180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aruda Orient Holidays

www.garudaholidays.kr

GOH 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항공, 대한항공, 싱가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말레이지아 항공, 에바에어, 로얄타이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콴타스항공, KLM 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야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인천발 자카르타행 기내에서 이민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편리해진 가루다 항공 에어텔 프로그램

Resort	Room Type	2인 1실			1인 1실		
		항공 + 2박		1박 추가	항공 + 2박		1박 추가
		2/5~2/28	12/25~ 2/4			12/25~ 2/4	
IBIS Kemayoran ★★★	Standard	759,000	789,000	34,000	829,000	859,000	68,000
IBIS Arcadia ★★★	Standard	769,000	799,000	38,000	839,000	869,000	76,000
IBIS Slipi ★★★	Standard	769,000	799,000	41,000	849,000	879,000	81,000
Kartika Chandra ★★★	Standard	769,000	799,000	42,000	859,000	889,000	83,000
IBIS Mangga Dua ★★★★	Superior	779,000	809,000	43,000	859,000	889,000	85,000
Mercure Rekso ★★★★	Superior	799,000	829,000	43,000	879,000	919,000	85,000
IBIS Tamarin ★★★	Standard	799,000	829,000	45,000	889,000	919,000	90,000
Aston Marina ★★★★	1 Bedroom	799,000	829,000	47,000	899,000	929,000	93,000
Le Meridien ★★★★	Superior	829,000	859,000	58,000	949,000	979,000	115,000
Crowne Plaza ★★★★	Deluxe	839,000	869,000	63,000	969,000	999,000	125,000
Gran Melia ★★★★	Deluxe	879,000	919,000	85,000	1,059,000		170,000
Mulia Senayan ★★★★★	Splendor	959,000	989,000	122,000	1,219,000		244,000
Four Seasons ★★★★★	Superior	969,000	999,000	124,000	1,219,000		248,000
Ritz Carlton ★★★★★	Grand Room	999,000		140,000	1,289,000		279,000
Mandarin Oriental ★★★★★	Superior	999,000		142,000	1,299,000		284,000
포함사항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7일 유효),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및 조식						
불 포함사항	항공 TAX, 현지 공항 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인도네시아 입국비자						

"인도네시아 주요 여행지 호텔"

	호텔*리조트		풀빌라*산장
발리	★★★★★ ★★★★ ★★★	Inter Continental, Conrad Westin , Nikko Bali, Melia Holiday Inn, Sanur Beach,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Kamuela Vilas Sminyak The Ahimsa
롬복	★★★★★ ★★★	Sheraton Senggigi Senggigi Beach Hotel Holiday Resort	Pool Villa Club The Santosa Vilas & Resort Puri Mas Boutique Resorts & Spa Qunci Villas
족자카르타	★★★★★ ★★★★ ★★★	Hyatt Regency, Melia, Sheraton Phoenix, Novotel, Satika, Plaza Puri Asri	
수라바야	★★★★★ ★★★★	JW Marriot, Shangri-La Plaza, Novotel, Somerset	Java Banana

Garuda Indonesia

Garuda Orient Holidays KOREA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PT. BOSUNG INDONESIA
KS A 9001 : 2001/ISO 9001 : 2000 - KS A 14001 : 2004/ISO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SHOPPING BAG
• OFFSET PRINTING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amatan Pasar Kemis Tangerang 15560 Banten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Hunting)
Fax. : (021) 5935 0022 (Shopping Bag) - (021) 5935 0066 (Inner Box) - (021) 5935 0033 (Carton Box)

PT. TAEWON INDONESIA
ISO 9001: 2000 / ISO 14001 : 2004
• CORRUGATED
• CARTON BOX
• INNER BOX
• OFFSET PRINTING
Taewon
Jl. Raya Industri Selatan 1, Blok LL-6 Kws. Industri Jababeka II Cikarang Bekasi 17550
E-mail : sales@taewon.co.id Tel : (021) 8948 - 1234 Fax No : (021) 8984 - 1133/1134

세계 자연유산 제주도에 지금 바로 투표합시다!

제주도가 The New7wonders에서 진행 중인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28개 후보지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신 거옌 고람 신디 (뭐라고 말하는지)
고만히 생각호멍 들으민 조금씩 알아집니다~~

대한민국,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전 세계 440여 곳을 후보지로 전 세계 1억 명의 네티즌이 투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세계 28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계 7대 자연경관이 되기 위한 최종 투표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투표기간 : 현재 ~ 2011. 11. 11 (발표일)**

○ 투표방법 : 인터넷 및 전화 투표

전화투표는 제주도 1개만 선정하면 되지만, 인터넷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7개 지역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화투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유리합니다.

<인터넷 투표> : www.new7wonders.com

– 회원가입 필요, * 가능하면 개인정보 입력시 주재국 국적 표기

– 28개 후보지 중 7곳을 선택 / 소요시간 5분

* 마지막 단계에서 간단한 신상명세 입력 후,

투표시 입력했던 개인 이메일로 보내오는 투표확인 메일에 재 접속하면 투표 완료

<전화 투표>

– 전화걸기(세계 공통) :

* 001(또는 007)-1-869-760-5990

* 001(또는 007)-1-649-339-8080

* 001(또는 007)-44-75-890-012-90

– 사무국 직원의 안내멘트(영어) 후

"삑~~~" 음이 나오면제주도코드(7715)

입력 후 thank you 멘트가 나온 후 끊어야 함

* thank you 전에 통화종료 시 무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jejun7w.com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jejun7w.com

세계 7대 자연경관 결선후보 28곳 :

제주도(대한민국), 아마존 열대우림(브라질), 앙헬폭포(베네수엘라), 킬리만자로(탄자니아), 퀸디만(캐나다), 코모도 국립공원(인도네시아), 검은 숲(독일), 몰디브 섬(몰디브), 부티나 섬(아랍에미리트연합), 마수리안 호수(폴란드), 모허 절벽(아일랜드), 마터호른 · 체르비노 산(스위스 · 이탈리아), 사해(이스라엘 · 요르단 · 팔레스타인), 밀퍼드 사운드(뉴질랜드), 엘 윤케(푸에르토리코), 진흙 화산(아제르바이잔), 갈라파고스 군도(에콰도르),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 강(필리핀), 그랜드 캐니언(미국), 순다르바스(방글라데시 · 인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호주), 테이블 산(남아프리카공화국), 하롱베이(베트남), 울룰루(호주), 이구아수 폭포(브라질 · 아르헨티나), 베수비오 산(이탈리아), 제이타 동굴(레바논), 위샨(대만)

모의 재외선거 참가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많은 재외국민들이 염원해왔던 참정권 행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처음 치러지게 될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관하에 전 세계 모든 공관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가상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의선거를 통해 재외선거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본 선거의 절차사무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 · 개선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모의선거 참여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정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의선거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대 상 선 거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지역구 및 비례대표)

2. 실 시 지 역 : 모든 재외공관

3. 주 요 일 정

모의선거 참가 신고 · 신청기간 :
2011. 5. 27. 6. 2. 까지
모의투표일 : 2011. 6. 30.(1일간)
모의투표 개표 : 2011. 7. 8.(모의선거일)

4. 참가신청 대상자

모의선거일(7. 8.) 현재 19세 이상(1992. 7. 9.이전 출생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5. 참가신청 방법

▶ 신고 · 신청서 등 작성 · 제출

재외선거인 :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비자 · 영주권증명서 · 장기체류증 사본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중 하나

※ 국적선택기간 중에 있는 복수국적자는 위 ③번 서류 대신 국적선택확인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음.

제출 가능한 서류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참조

국외부재자 :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신고 · 신청서는
공관민원실,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비치 또는 게시(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고 · 신청서 제출 방법

재외선거인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 제출
국외부재자 : 국외체류자 ⇒ 공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국내체류자 ⇒ 구 · 시 · 군청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6. 투표장소 및 기간 등

▶ 투표장소 : 모든 재외공관에 설치

※ 모의선거 실시 공관별 투표소의 명칭 · 소재지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시하고 모의선거인(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발송(예정)

▶ 투 표 일(시간)

2011. 6. 30(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각 국가별 현지시간 기준

▶ 투표용지

국내 구 · 시 · 군선관위에서 모의선거인에게 6월 14일까지 우편발송
공관을 국외거소로 신고한 모의선거인의 투표용지는 해당 공관에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수령

▶ 투표방법

투표소에 갈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지참하여야 함.

투표용지에 가상 후보자의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또는 기호를 적는 방식(자서식)으로 투표함.
※ 가상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성명 · 기호 · 명칭 등은 향후 재외선거홈페이지, 외교통상부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투표기간 중에는 투표소에 비치할 예정임.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자원봉사로 만드는 세계인의 축제!!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해외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고 전국의 각계각층, 해외자원봉사자들까지 참여하여 범국가 행사 및 지구촌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o 주 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o 기 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 (93일간)
o 장 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o 규 모 : 참가국 100개국, 관람객 800만명

□ **자원봉사자 모집 개요**
o 기 간 : 2011. 4. 1 ~ 2011. 6. 30(3개월간)
o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2012. 5. 12 현재) 내 · 외국인으로서 10일 이상 근무가능한 자
* 해외봉사자는 항공료 및 체재비 자부담이 가능한 자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어야 함
o 모집구분
– 개인모집과 단체모집 병행 실시(60% : 40%)
* 단, 단체는 10명 이상 구성할 수 있는 기업체, 대학, 사회 · 공공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
o 분 야 : 관람안내, 질서유지, 출입관리, 통역, 행정 · 전산 등 9개 분야 19개 직종
o 총인원 및 근무처 : 13,000명 – 박람회장 내, 엑스포타운, 환승주차장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우편접수 가능
o 우편접수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활용
* 개인프로필은 홈페이지에서 엑셀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vtadmin@expo2012.or.kr)로 제출

□ **선발방법**
o 서류심사 : 7. 1 ~ 7. 31
o 면접실시 : 8. 1 ~ 9. 30 (전국 주요도시 순회심사)

□ **기타**
o 근무기수 및 직종은 참여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박람회 자원봉사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vt.expo2012.or.kr

o 2012여수세계박람회 자원봉사센터
– 전 화 : 02)746-7996 ~ 8
– 팩 스 : 02)746 ~ 7999
– 이메일 : vtadmin@expo2012.or.kr

o 주 소 : (110-793) 서울시 종로구 계동 율곡로 75 현대빌딩 4F (안국역 3번 출구에서 50m)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교민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컨텐츠를 확보하여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승 은 호 배상

◁◀◁ 표지설명 ▷▶▷

가족!
희망보다 더 밝은 희망, 등불보다 더 빛나는 등불
웃을 수 있게 해주고, 꿈 꿀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 . . . .

표지그림 : Diki Satria Nugraha

차 례

제주에 투표합시다 6

모의 재외 선거 참가 안내 8

여수세계박람회 해외자원봉사자모집.....9

한*인니문화연구원인터넷공모전.....12

산과 들에 피는 꽃 / 한국의 야생화 13

차 한 잔 마시며 / 원폭과 원전<김문환>.....14

이달의 테마 / 가족 16

부임사 / 신임 김영선 대사.....20

인터뷰 / 김동호 끄라까따우포스코법인장..... 22

자카르타 스케치 / 안쫄에서<정무송> 25

시사 인도네시아 <신성철>
/ 다시 울리는 테러경보..... 26

안녕하십니까, 박정자입니다.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는 달, 오월입니다. 이 달의 테마는 가족입니다. 아는 얘기의 반복이라 해도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가족의 역할과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에는 '재외투표 참가 안내' 등 공지가 많습니다. 공지사항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미래 지향적이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기사마다 한층 더 활발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독자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5월부터 <한국문화원>에 행사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문화산책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문화원 전화는 2903-5650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영선 대사님 환영합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5.1070.3065 박 정 자

contents

5
2011 VOL.179

이달의 읽을거리

이모저모, 한인사회 28
- 김연선대사 교민사회 전체 언론인과 간담회 개최
- 한인회, 일본대사관에 성금 전달
- 한인회, 신임대사와 상견례
- 대사관 귀부임자 명단
- 건강검진 상세 안내
- MOU/인니청소년체육부와 한국체육대학교
- 토종프랜차이즈 해외로 간다, 오피스박스 1호
-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교민 3명 입상
- 도처교학 /인재 손인식
- 김영선 대사 인니비즈클럽 방문
- KADIN 전국 지도자 회의(RAPIMNAS)
- 제1차 한/인니 해양수산포럼 개최(알림)
- 한인회 YPAC에 성금 전달
- 2011 한인회 임원 찬조금 명단
- 직스 소식
  / SMA Negeri 68 Jakarta와 자매결연
  /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창단
  / 신임 김영선 대사 방문
  / 글로벌 리더십 캠프
- 동남아국제학교 협의회 2011
  <취재 : 길나연 한인뉴스 학생기자>
- 제10회 한인니문화원 문화강좌 <김재원>
  / 보로부두르 그리고 살아숨쉬는 족자 이야기
- 헤리티지 사진강좌
- 한인회 강좌 및 무료법률상담 안내
- 문화탐방기 / 나를 깨우치고 배우리라 <이동균>
- 대사관에서 인도네시아 현대사 강의를 듣다
- 인질 강도 전원 검거

쌀과 식량안보·2 <농학박사 최해춘> 50

생활 속의 경제이야기<최양기>
/ 금리(이자율)!! 너의 정체를 밝혀봐!!..... 52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김성월>
/ 꾸수룹안(귀신) 들린 사람들..... 55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이승민>
/ 국적법 1 57

이병수와 함께 하는 보험교실<이병수>
/ 손해보험 60

길 위에서<박관구>
/ 일본을 어찌할꼬? 62

와칭! 코리아
/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합니다.....65
/ 전인미답의 길로 나아가는.....68

문화회관 이용 안내.....69

인도웹이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 70

신간 안내 /인사·노무바이블.....72

생활정보.....73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발행인 : 승은호 / 편집인 : 조규철 /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박정자 / 편집위원 :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 웹사이트(http://www.innekorean.or.id)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있습니다*******

한 · 인니문화연구원

제2회'인도네시아 이야기'인터넷 공모전

-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 -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연한 떠남으로 우리는 늘 설렙니다. 차밭에서는 한 그루 차나무가 되고
고도古都에서는 영원을 느끼고 꽃을 만나면 향기가, 소외된 이웃을 만나면 눈물이 되는 아름다운 당신,
인도네시아의 자연과 문화를 마음의 풍경에 담아 설렘이 더는 향수가 되지 않는,
진정 자유로운 당신을 찾습니다.

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모전에도 함께 하시어 아름다운 시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 원고 모집 기간 : 2011년 5월~8월 20일 (문화탐방기 / 생활수기)
- 원고분량 : 산문 - A4용지 2쪽 이상 / 시 - 자유
- 대 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일반인
-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 시상 및 낭송회 9월말 (날짜, 장소 추후 공고)
- 시 상 :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

문의 : 사 공 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박 정 자 0815.1070.3065 / poemever@hanmail.net

후 원 :

재인니한국대사관, 재인니한인회, 재인니상공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부인회, 한나프레스, 일요신문, 데일리뉴스, 한인뉴스

밤새 춤추던
작은 요정들
아침이 밝아오자
깜짝 놀라서
와인잔을 걸어두고
사라졌다는
요정들의 찻잔

우리들 마음에
방울소리 맑고
사랑의 향기 넘쳐서,

빛나는 오월이소서

천국에 이르는 계단 **은방울꽃** (백합과) 학명 : Convallaria keiskei

꽃 말 : 순결, 다시 찾은 행복

한국 · 중국 · 동시베리아 · 일본 등에 분포되어 자라는 여러해살이 꽃. 높이 25~35cm 가량, 5~6월에 흰색으로 핀다. 유럽에서는 이 꽃을 따서 존경하는 사람에게 전하면 소원성취하며 행운을 얻게 된다는 속설이 있어 은방울꽃에게 5월은 오히려 수난의 달이다.

'님그림자풀–군영초' 로 불리기도 한다.

원폭原爆과 원전原電

김 문 환/논설위원

1938년 12월 1일 베를린의 방사화학자인 오토 한(Otto Hahn) 박사와 프리츠 슈트라스만(Fritz Strassmann) 박사가 공동으로 우라늄 235 핵분열시험에 성공하자 인류는 바야흐로 핵에너지 시대에 진입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우라늄이 전쟁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간파한 망명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1939년 10월 원폭제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서한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내자, 이를 계기로 미국정부는 태평양전쟁이 개전된 지 6개월 후인 1942년 6월 18일 핵무기개발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여 당시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20억불이라는 자금을 투입하여 소위 '맨하탄계획(Manhattan Project)' 이라 명명된 핵무기개발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추진하게 된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과학자와 수많은 망명과학자들의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 계획의 총괄적 지휘자는 미 육군공병사령부 소속 레슬리 그로브스(Leslie Groves Jr.) 대령이었으며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에 재직 중이던 이론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Robert Oppenheimer) 박사는 과학부문의 총책임자였지만 원폭의 연구상황, 사용계획 등 전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헨리 스팀슨(Henry Stimson) 전쟁장관뿐이었다.

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주 앨라모고도(Alamogordo)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원폭실험이 성공을 거두자, 오펜하이머 박사 등이 주재한 선정위원회가 원폭투하지로 처음 추천한 곳은 교토(京都), 히로시마(廣島), 고꾸라(小倉), 니가따(新潟)였으나 스팀슨 장관이 개입하여 일본황실의 고향이며 그 자신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교토를 빼자 나가사끼(長崎)로 대체되었고 니가따는 투하 표착지와 도심지역이 멀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리하여 산업도시로서 일본 본토수비군인 제2총군사령부가 위치하며, 동시에 통신센터이자 병참기지였던 히로시마가 제1목표지로 정해지고 고꾸라는 제2, 나가사끼를 제3 목표로 정하는 제안을 미 육군항공사령관 아놀드 장군에게 올려 확정된 것이다.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45분, 제393 폭격대 소속의 B-29 '에놀라 게이(Enola Gay)' 호는 티벳츠(Paul W. Tibbets) 대령이 직접 조종간을 잡고 파슨스(William Parsons) 대위가 무기조립, 토마스 페레비(Thomas Ferebee) 소령이 원폭투하 임무를 분담한 채 '꼬마(Little Boy)' 라는 코드가 붙은 우라늄 원자폭탄을 싣고 2대의 다른 B-29전폭기와 함께 마리아나제도의 티니안(Tinian)섬 북부 활주로를 벗어나 고도 31,600 피트(9.600미터)의 히로시마 상공에서 아침 8시 15분에 인류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다.

3일 후인 8월 9일, 스위니(Charles Sweeny) 소령을 기장으로 하는 B-29 복스카(Bockscar) 호는 이날 새벽 1시 56분에 역시 같은 기지인 티니안을 출발하여 이번에는 공격목표를 고꾸라로 잡고 비행하고 있었다. 당초의 계획으로는 이 제2차 공격은 8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슈 지상의 기상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8월 9일로 앞당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고꾸라 상공은 70% 정도가 구름에 가려 목표물을 찾을 수 없었다. 복스카호는 세 번째로 고꾸라 도심에 접근을 시도

하는 사이 연료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 지상군의 고사포가 불을 뿜기 시작하고 전투기가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이때 스위니 소령은 나가사끼로 목적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긴급타전하고 복스카호의 기수를 돌렸다. 나가사끼는 일본본토 남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대규모 산업도시였기에 히로시마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에게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폭투하 후 미국은 그 해 8월 셋째 주에 한 기, 9월과 10월에 각각 한 기씩 추가로 투하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직전 일본의 항복으로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더 이상 교전을 계속하게 된다면 종국에는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뿐더러 결국 인류의 문명까지도 파각하게 될 것이다."

위 문장은 나가사끼에 두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일만인 8월 15일 정오시간에 히로히토 일본왕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는 내용 중 일부이다. 이처럼 '민족의 멸망'을 눈 앞에 둔 긴박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일본 국민들은 이 전쟁의 패배를 일본 역사상 최대의 국가위기로 기록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진도 9.0의 지진은 쓰나미를 동반하여 일본 동북부 해안지방을 초토화시켰다. 그리고 이 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손상을 입어 하늘과 바다로부터 침투하는 방사능오염 문제로 주변국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재앙이 상기 언급한 원폭으로 인해 국가가 패망한 제2차 세계대전이래의 최대 위기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천황의 심경처럼 일본 역사상 최대위기였다던 제2차 세계대전과 지금의 위기의 중심에는 똑같이 '원자(原子)'라는 공통원소가 자리잡고 있다. 당시에는 '원자'라는 원소가 전쟁무기로 활용되었지만 지금의 '원자'는 '원자력발전소'라는 평화적인 에너지 용도에 사용되었는데도 이것이 인간에게 화를 일으키는 독소로 변모한 것이다.

2009년 말 한국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47조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자력발전소 플랜트 수주를 성공시켰고 이에 고무되어 그 후속타로 제3국에 대한 수주전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그 대상국 중 한곳으로 지목되어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경제특사단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타당성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보도가 자주 매스컴에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금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세계 각국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고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적인 목소리로 합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적인 사업인 원전수주에 대해 정부차원의 정책과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곳에 거주하는 교민 개개인도 국가를 위한 작은 보탬이 된다면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심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천국과 가장 가까운 상징

가 족

아무리 애쓰거나, 어디를 방랑하든, 우리의 피로한 희망은
평온을 찾아 가정으로 되돌아온다.
–Oliver Goldsmith–

우리들의 동그라미

밤 되면 집에 가기

생존 이래 가장 오래된 약속이야
생존을 위한 최상의 약속이야

약간은 멍들어 있고
약간은 긁혀져 있고
약간은 곪아있기도 하면서

약간은 작아지기도 하고
약간은 비워지기도 하고
약간은 낡아지기도 해서

마약 바다에서 돌아온 무용담 같은,

등에서 내려놓은 뼈와 나머지 가시만으로
팝콘처럼 푸짐한 우리 두렛상
20W 형광등 아래, 오늘도
약속을 잘 지켜준 동그라미가 세 개
고맙구나 고마워

서로의 팔다리를 서로 얽고서
원시의 잠을 청하는
목면처럼 보드랍게 스미는 간지러움
우리들의 동그라미

내일의 진주를 궁리하면서
내일의 궤도를 수정도 해보면서

.....<시 : 박정자>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이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는 기본적 사회집단' 이며, 이익관계를 떠난 '애정적 혈연집단' 이며, 같은 장소에서 기거하고 취사하는 '동거동재(同居同財) 집단' 이며, 그 가족만의 고유한 가풍을 갖는 '문화집단' 이며, 양육과 사회화를 통하여 인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인간 발달의 근원적 집단' 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어 가족(家族)은 영어 Family보다 따뜻한 어원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영어 'Family' 는? 'Family' 의 어원은 라틴어 'Famulus' 에서 유래된 말로 집안의 노예를 의미했다고 한다. 혈연관계로써 부모와 자식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논과 밭, 가옥, 금전, 노예 등 한 남자에 속한 생산도구를 의미했다는 것이다. 고대 희랍에서는 가족을 나타내는 말로 'Oikos'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또한 재산이나 주거를 의미한다. 재미있는 논거는 'Oikos' 는 'Economy(경제)' 의 희랍어원이라는 점이다. 고대로부터 가족의 탄생은 경제적 조직체, 필요에 의해서 탄생되었다는 근거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실제로 가족이란 단순한 남녀의 성애적 결합에 의한 정서적 유대집단이나 혈연조직만이 아닌, 양육이 이루어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해야하는 재산권 행사나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극히 서양적인 관점이다.

'Family' 의 어원에 관계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재치 있는 해석이 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를 합성한 단어가 'Family' 라는 것이다. 이 해석의 유래 자체에 장난기가 느껴지기는 하지만 정감 있는 해석이라서 그런지 믿고 싶어진다.
가족이란 그런 것, 소설이나 연극에서 결혼은 대개 이야기의 끝이지만 진짜 삶 속에서 결혼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2막 1장이다.
가족이 탄생되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현대의 각박한 현실을 체험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 위기, 해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들리는 것이 요즘 우리들 가정의 실태이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가족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 속에 담긴 가족의 역할은 무엇인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보는 어려운 숙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의 50.5%에 그쳤다. 지난 2005년 1차 가족실태조사 당시(79.2%)보다 30%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가족의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할머니 · 할아버지를 가족으로 여기는 응답자는 6년 전(63.8%)의 1/3 수준인 23.4%에 그쳤다. '-<조선일보, 2011/1/24>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2차 가족실태조사(2011. 1.) 결과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가 '혈연' 에서 '거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5명 중 1명은 부모라 해도 따로 산다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집에서 사는 사람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의 개념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이라는 뜻인 식구라는 개념으로 협소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급격한 가족의 변화를 경험하며 가족을 더 이상 혈연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자연발생적인 원초적 집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는지 모른다. 물론 가족은 여전히 위대한 생존가치와 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가족이 변화하여 의미와 기능이 매우 약해지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어 서로 심리적 · 정서적 정감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이란 서로에게 자원이 되고 충족감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적인 체계로 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가족이었다. 가족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가족은 개인을 보호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화목한 가족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온 사이에 사회가 크게 변했고, 가족관계도 크게 변했다. 부부 간의 관계도 변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변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생각도 변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와 같지 않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시켜 나가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자녀는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행복한 가족이란 어떤

것일까?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의 글 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과 믿음, 칭찬과 격려, 용서와 배려가 넘치는 가족이다.
둘째, 말이 통하는 가족, 대화가 있는 가족이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의도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푸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다.
셋째, 함께 하는 가족이다. 식사도 함께 하고 TV도 함께 보며 취미와 운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이라면 행복한 가족이 틀림없다.
넷째, 공동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족이다. 각자의 가치관이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공동의 가치관을 위해 내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융통성이야말로 행복한 가족의 필수 조건이다.
다섯째,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가족이다. 행복한 가족이라고 해서 싸움도 전혀 안 하고 365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접근하여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할지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다.
여섯째, 헌신하는 가족이다. 요즘 세상에 '헌신' 같은 것이 존재하기나 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최고의 미덕이다.
마지막으로 웃음이 넘치는 가족이다.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해서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가족이 함께 하는 자리에 웃음이 넘쳐난다면 행복한 가족임에 틀림없다.

위와 같은 행복한 가족의 7가지 공통점에 비추어 보아 우리 가족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에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가 짝지어주는 대로 결혼해서 평생 그 마을에서 농사만 짓다가 생을 마감하던 농경사회가 이제 아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머니나 아버지 역할, 남편과 아내 역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역할에도 변화경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국영수만 공부가 아니라 결혼의 의미, 배우자 선택, 부모교육, 부부 대화법, 중년의 위기 극복 방법,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에

대한 공부도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태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가 커지고 극도로 악화되면 그 어떤 전문가도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자식 중심, 돈 중심, 일 중심으로 사는 것도 건강한 삶은 아니다. 부모의 삶에 자식이 전부도 아니고 자식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과 돈을 위해서 밤낮없이 바빠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가족의 행복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 가족 간의 애정도모

애정은 가족생활의 중요한 소산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서로간의 영속적인 애정 때문이며, 자녀들은 정서적 분위기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 부부와 자녀가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애정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정감 부여와 수용

가족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를 증진시키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가족원들의 안정감과 지속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 만족감과 목적 의식 부여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걱정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가족은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만족감과 보람을 개인에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 지속적인 동료감 유지

가족원은 일상생활의 실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공감해 주는 동료이다. 다시말해 가족은 밖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서로를 격려해 주며, 자기 가족만큼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고 실패한 경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평생 지속하는 동료감이야말로 가족의 기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 사회적 지위 부여와 사회화

어떤 사회에서나 필수적인 기능으로 출생 시 자녀는 자동적으로 그의 부모가 속한 사회계층에 속하게 되며,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문화유산을 전수시켜 나가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것은 여러 사회구조들의 존재 의미를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인성발달 시기를 통해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를 동일시하게 되므로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를 도모해 주는 역할 모델이다.

♣ 통제력과 정의감의 확립

가족을 통하여 개인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 권리, 의무, 책임감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가족원들은 가족 이외의 집단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방법으로 서로가 자유로이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명령하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기도 하고, 상을 주거나 벌을 주기도 하고 달래거나 위협하기도 한다. 자녀가 초기에 경험한 칭찬과 벌은 그의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되어 성인기의 도덕관과 선, 정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켜 준다. 가족은 다양한 생활방식 중에서 평가하고 선택하는 가치관을 길러주는 원천이 되므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

희망보다 더 밝은 희망, 등불보다 더 빛나는 등불. 웃을 수 있게 해주고, 꿈 꿀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해주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새로 부임한 김영선 대사입니다"

친애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우선 이렇게 지면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외교관계를 맺은 이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역사는 반세기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평양 전쟁시 많은 우리 동포가 이곳에 끌려와 피를 흘렸고, 이미 자원외교의 일꾼들이 밀림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선대의 고귀한 피와 땀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인동포사회는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동포여러분 개개인의 성실한 노력, 그리고 한인회등 동포 지도자분들의 지혜와 화합노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탄탄한 한인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의 재임기간 중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양국의 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거의 50%나 신장되어 약230억불에 이르렀고, 포스코 등 대규모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4만명이 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인도네시아 커뮤니티도 3만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 인도네시아 양국이 서로를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양국관계가 이제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

김영선 대사는

1955년생이며 제11회 외무고시 출신이다. 1977년 외무부 근무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이집트, 이스라엘 공관을 거쳐 레바논 대사를 지냈으며 2009년부터는 외교통상부장관 특별보좌관과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난 3월 29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로 부임했다.

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분야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정치·외교·경제·문화·사회·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의 틀(framework)을 염두에 두고 우호.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사로서 양국관계가 시대가 바뀌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게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일하고자 합니다. 대사관문턱의 높낮이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공론입니다. 대사관에는 문턱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외교는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것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사로서 솔선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기업의 현장에 다가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동북아의 한구석에 위치해 있는 변방국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값지게 쟁취한 민주화와 경제.사회 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기여하는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G-20국가로서 작년에 G-20정상회의를 주도했고,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당당한 원조국가로서 올해 국제원조의 최고위급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합니다. 내년에는 핵 안보와 안전에 관한 정상회의를 우리가 주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커진 탓이기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한인동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우리사회가 발전한 데 대해 자긍심을 가지시는 한편, 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다 큰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일원으로서 인도네시아 커뮤니티와 화합하고 기여하는 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모든 사람이 외교관인 시대입니다.
정부차원의 외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깔리만탄 등의 외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소외받는 지역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 봉사단원들, 한류를 펼치는 한류스타들, 한국음식 국제화에 기여하고 계시는 요식업 종사자 여러분들,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분들 모두가 우리의 외교관인 것입니다. 저는 대사로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고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외교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러하듯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국가, 국민들의 마음과 가슴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를 '감성외교'라고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서 이해와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다시 한 번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더욱 친숙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대사, 대사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김영선

PT. KrakatauPosco

인니에 울리는 힘찬 고동

끄라까타우포스코(PT. KrakatauPosco). 한인교민사회 뿐만 아니라 한·인니 국가 간에도 대단한 관심사인 인도네시아의 끄라까타우스틸과 한국의 포스코가 합작설립한 일관제철소의 법인명이다. 두 회사가 합작사를 설립하고 부지착공식의 첫 삽을 뜬지 6개월이 지났다. 지난 4월 26일 한인뉴스편집팀이 제철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김동호 법인장을 만나 그간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었다.

2주 전에 새로 옮긴 사무실은 건설현장을 바로 조망하는 위치에 조립식 건물로 지어져 실무에 필요한 가구들만 배치되어 있어 이곳이 건설현장의 한복판임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의 포스코와 인도네시아의 끄라까따우스틸은 40년 전,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졌다. 생산량으로 본다면 끄라까따우스틸이 연간 250만 톤을 생산하는 반면, 포스코는 4,000만 톤을 생산한다. 생산량에서 뿐만 아니라 철을 생산하는 공정에서도 비교가 되는데, 포스코는 고로를 사용해 쇳물을 만들지만 끄라까따우는 펠레트(pellet)를 수입하여 전기로 열을 가해 쇳물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가 높다는 불리함이 있다. 총 투자금액은 60억 달러이며 포스코가 70%, 끄라까따우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2단계로 나누어 연산 60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아국가 중 고로를 갖추고 있는 일관제철소는 아직까지 없으며 세계 유수의 제철소일지라도 해외에 고로를 갖춘 일관제철소를 직접 건설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김동호 법인장의 설명이다.

– 인니와 합작설립을 하게 된 배경

인니는 투자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다. 인력이나 제철과정의 원료가 될 자원이 풍부한 것은 물론이고 철강 소비량에서도 인니는 경제 이륙기에 접어들고 있다. 인당 철강 소비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을 넘어서면 그 시기를 기점으로 경제성장이 본격화된다고 본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당 철강소비량이 30kg 수준인데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2014년이 되면 바로 그 시기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본다. 또 한 가지, 합작을 시작하면서 유리한 점은 이 지역에서 40년간 조업을 하면서 끄라까따우스틸이 구축해 놓은 도로나 항만, IT 서비스 등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분에 준공시기를 많이 앞당길 수 있다. 끄라까따우스틸이 보유한 장점과 포스코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 만나면 커다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합작설립의 추진 일정

2008년에 정부 간 기본합의가 이루어져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쳤다. 2010년부터 본격적인 합작사 설립에 들어가 부지착공식까지 마쳤다. 부지조성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시작하여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금년 7월부터는 지반침

하를 막기 위한 파일공사와 주설비공사가 시작된다. 그때는 인도네시아 정부고위관계자들을 모시고 착공식을 할 예정이다. 본 공사는 약 30개월이 소요되는데 준공시기를 2013년 12월로 잡고 있다. 상업생산은 2014년부터 가능하다.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준공 후에는 슬라브와 후판을 연산 300만톤 생산하게 될 것이다. 파이넥스공법이 추가된 2단계까지 완료되면 기존 제품에 열연강판이 추가되어 총 연산 600만 톤으로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 지리적 위치

현재 제철소를 건설하는 곳은 자카르타에서 100여 Km 떨어진 자바 서부 끝단에 위치한 찔레곤이라는 산업도시이다. 제철소는 1,2 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이지만 부지를 조성하는 일은 1단계부터 병행하고 있다. 2단계가 되면 원료하역과 제품 선적을 위한 항만도 새로 조성하고 제철공정 중 발생되는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소도 지을 예정이다.

– 커뮤니케이션 확보와 유지

제철소 건설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인허가 사항 등 많은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차원의 Single Window Meeting 을 개최하여 부지문제, 세제혜택, 자원개발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요청 사항을 의논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10억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회사에 세제혜택을 위한 법이 상정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 그 법이 확정되면 외국인회사로서는 시범사례로 포스코가 혜택을 받아 운영될 것이다. 또한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를 포함한 이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EZ)으로 만들기 위한 사항도 진행중에 있다. 정부와의 관계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고졸 채용 예정 인력의 70% 정도를 찔레곤과 반튼주 내에서 고용하려고 한다. 인근지역 일자

리 창출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원료의 사용에 있어서 부원료는 100%, 철광석은 30%를 사용하는 등 차이는 있겠으나 50%이상의 원료 및 부원료를 현지 부존자원으로 조달하기로 했으며 현지 기업의 참여도도 높일 것이다.

– 기업의 책임활동

기업 활동에는 항상 사회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끄라까따우포스코 역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전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사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룹의 특화된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Pro-bono 활동 등 기업의 책임활동을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찔레곤 소재 10여개의 도서관에 700권의 장서를 기증했으며 적십자사에 수혈검사장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이런 장비가 없어서 자카르타까지 나가서 수혈을 해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한다. 그 밖에 제철소 부지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기업과 사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바나나나무와 잡목들로 뒤덮였던 388헥타르(약120만평)의 대지를 흙으로 다지기 위해 24톤 대형트럭들이 뽀얀 흙먼지를 내며 드나들고 있는 현장, 최대로 활용할 경우 300대까지 가동시킬 예정이다.

김동호 법인장은 교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소문으로는 포스코가 들어오면 그로 인한 협력사와 가족들이 만 명은 더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그랑 등 일부지역은 포스코로 인해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봅니다. 시운전 1년 동안은 본사 지원팀까지 포함하면 3~4백 명 정도 와 있게 되겠지만 길어야 1년 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남게 될 인원은 60명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나마 가족들은 거의 자카르타와 찔레곤에서 살게 되겠지요. 제철회사는 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합니다. 각 업종마다 경쟁력을 갖추고 공정하게 입찰에 응해서 참여의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스코 그룹에는 공급가능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특정개인과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납품과 관련하여 교민들 간에 포스코를 빙자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투자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오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민들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포스코가 산업의 쌀인 철강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하여 수요산업에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것과 같이 끄라까타우포스코(KrakatauPosco)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착실히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포스코의 인니일관밀 프로젝트는 단지 포스코나 포스코 계열사만의 미래가 아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며 인도네시아의 미래가 걸린 뜻 깊고 중대한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올린 포스코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인도네시아라는 토양에서 다시금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또 하나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이면 그들의 분투가 용광로를 통해 뜨겁게 분출하여 세계로 향하는 찬란한 강철꽃으로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동호 법인장은, 1984년 포스코에 입사한 이래 27년을 근무한 진정한 철강맨이다. 주로 제철설비투자 및 시공파트에서 일해 왔으며, 광양제철소, 중국장가항 스테인레스일관밀 건설, 베트남 프로젝트 참여 등 8년째 해외 제철소 프로젝트에 몸담아 왔다.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이라는 중책이 맡겨진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게다.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두 국가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그의 소임은 더욱 무거워졌다.

포스코에 거는 기대가 크다. 포스코와 한인기업들 간의 협력과 참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안졸 Ancol

인도네시아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아쿠아를 한 인부가 삶의 무게인양 지고 있다.
신산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의 어깨가 믿음직스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그처럼 삶을 열심히 살고 싶다
그리고 맑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
그의 어깨에 실린 아쿠아처럼

<사진과 글 : 정무송 / 한인뉴스편집위원>

신 성 철 (데일리코리아 인도네시아 대표)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다시 울리는 테러 경보...
급진주의 이슬람단체 암약

한동안 잠잠했던 테러분자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테러의 타깃도 불특정 다수의 서양인에서 진보성향의 이슬람 인사 등 내국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안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4월21일 땅그랑군 서르뽕 지역의 한 교회 인근에서 폭탄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24일 부활절까지 전국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발효하고 병력 2만 명을 자카르타에 배치했다. 다행이 추가 테러 없이 무사히 부활절 연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띠무르 쁘라도뽀 경찰청장은 경계령을 해제했으나 테러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찰과 국민에게 당부했다.

앞서 4월15일 낮 12시15분께 서부자바주 찌레본 경찰서 내 이슬람사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 테러용의자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경찰관 등 28명이 다쳤다. 이날 금요기도회 참석자는 대부분이 경찰관이었고, 검은색의 이슬람 전통복장을 입고 앞줄에서 기도하던 남자가 갑자기 "신은 위대하다" 라고 외치며 엎드렸을 때 폭탄이 터졌다. 목격자 중 한 사람은 "그 남자가 찌레본 경찰서장 가까이에 서 있었다" 고 전했다.

안뚠 바흐룰 알람 경찰청 대변인은 "DNA 검사를 통해 자살폭탄테러범이 무하맛 샤리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했고, 자살폭탄테러범의 아버지인 압둘 씨는 "2009년에 아들이 급진주의 단체에 가입한 후 과격해졌다" 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 샤리프의 배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테러 양상의 변화.. 대규모에서 소규모 조직으로

국제위기그룹(ICG)은 지난 4월21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테러 양상이 변하면서 조기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ICG는 테러대상이 불특정다수의 외국인에서 진보성향의 이슬람 인사, 테러와 마약퇴치작전을 수행하는 보안요원, 비무슬림, 이슬람에서 이단으로 취급되는 아흐마디야 종파 추종자 등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조직이 많은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던 방식에서 소규모 조직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테러공격으로 바뀌고 명령단계와 자금의 전달이 축소됨에 따라 테러음모의 감지가 더욱 어려워졌다.

ICG는 "찌레본 경찰서 관내 이슬람사원에서 발생한 자살폭탄테러와 3월 중순 자카르타에 배달됐던 소포폭탄이 이러한 변화를 방증한다" 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국가안보연구소 관계자 디노 크레스본 씨는 2008년 초부터 테러조직이 소형화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과거보다 명령단계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에 아쩨에서 제마 안쇼룻 또힛 군사훈련캠프가 적발된 후 테러리스트들이 대규모 조직을 지양하고 소규모로 쪼개졌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광범위한 테러용의자들을 체포하고 제마 이슬라미아(JI)와 제마 안쇼룻 또힛 등

테러조직을 구조적으로 무력화시켜왔다. 또 다른 테러전문가인 누르 후다 이스마일 씨는 테러조직이 작아짐에 따라 테러공격의 규모도 작아지는 대신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최신 테러의 타깃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는 진보성향의 이슬람지도자들과 법집행자들로, 보안당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테러용의자들을 사살하자 그들에 대한 복수에 나선 것이다. 결국 정부의 대테러작전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인도네시아 그룹사운드 데와(Dewa)의 일원인 아흐맛 다니의 집, 자카르타 라디오방송국, 국립마약국(BNN) 등 4곳에 3월 17일 책으로 위장한 폭탄소포가 배달됐고, 사흘 뒤 반둥 중심가 교통경찰 초소에서도 폭탄이 발견됐다.

다니는 유대교의 심볼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토크쇼와 노래를 통해 극단주의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의사를 표현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슬람국가 건설 이데올로기 조직'NII' 암약

경찰은 일련의 소포폭탄과 서르뽕 교회 폭탄테러 사건과 관련해 20여명의 테러용의자를 검거했다. 이중 주범 뻬삐 페르난도가 1998년까지 NII(Negara Islam Indonesia), 인도네시아이슬람국가) 운동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독자적인 투쟁을 위해 탈퇴하고 자신의 조직을 구성했다고 진술하면서 NII 운동이 주목을 받게 됐다.
서부자바주 가룻에서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로 1948년에 설립된 대규모 무장이슬림단체인 NII는 설립자 까르또수위르요(S M Kartosuwiryo)가 1962년 정부군에 처형된 후 해체됐으나, 최근 이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저명한 이슬람역사학자 솔라후딘 씨는 현재의 NII 조직에 대해 17만 명의 회원과 수백억 루피아 상당의 자산을 가진 대규모 조직으로 추정했다.
NII는 반둥공대(ITB)를 포함해 서부자바 지역의 대학생들을 주로 회원으로 포섭해 세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2003년 ITB 자료에 따르면 재학생 200명 이상이 NII에 가입한 후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등록금도 내지 않다가 결국 학업을 중단했다.
경찰은 최근 검거된 테러용의자들이 기존 테러리스트들과 달리 책과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새로운 집단이라고 밝혔다.
안똔 바흐룰 알람 경찰청 대변인은 "발리와 자카르타 호텔 폭탄테러 등을 자행한 기존 테러리스트들과 최근 검거된 테러리스트들과는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며 "그들은 자발적으로 급진주의에 빠져 지하드에 참여했고, 지하드에 관한 책을 보고 독자적으로 폭탄제조법을 배웠다" 고 설명했다.

헌재 소장"정부가 NII 확산 방치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마푸드 소장과 국민협의회(MPR)의 룩만 하낌 부의장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정보당국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후드 소장은 "급진주의단체가 수만 명의 회원을 세뇌시키는 동안 발각되지 않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며 "정부는 즉각 해명하라" 고 촉구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급진적인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극단주의운동의 확산이 다원주의와 관용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정부가 테러행위와 테러분자를 척결하겠다며 국민들도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보안당국은 불법 급진주의 단체인 NII의 재부상을 주목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들의 근거지를 추적하고 있다.

김영선 대사 교민사회 전체 언론인과 간담회 개최

여러분들의 노고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외교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대사관 회의실. 김영선 대사가 한인언론인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 대사관의 공보관, 홍보관, 참사관 등이 배석하고 KBS월드, K-TV, 한나프레스, 일요신문, 데일리코리아, 한인뉴스 등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대사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언론인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선 대사는 이제는 국민외교시대임을 강조하며 민간인, 기업인, 예술가들이 에너지를 모으면 더 큰 감동을 이 사회에 줄 수 있으므로 대사관과 교민사회가 함께 나아가자고 권고했다. 또한 대사관의 문턱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며 대사관 직원들과 동포사회가 서로 배려하고 보완되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서 우리 교민들이 지역사회와의 화합, 봉사, 헌신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때이며 열린마음, 큰마음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교민들에게 당부하며 언론인들에게는 소통의 가교가 되어 양방향 전달을 잘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인도네시아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큰 나라이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파트너로서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요지로 부임지에 대한 호감을 나타냈다. 최근 교민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예방차원의 홍보자료 배포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교민들의 신고를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사건사고창구단일화에 대한 방안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는 곧 개원될 한국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현기 홍보관(문화원장 겸직)은 한국문화원이 한국과 인니 문화가 동시에 알려지는 유용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통과 감성을 존중하는 김영선 대사와 함께 할 교민사회의 新 바람을 기대해본다.

.....<<김영선 대사의 모두 발언은 '부임사' 참조>>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일본대사관에 재난 위로 성금 전달
신임 김영선 대사와 상견례 가져

14일 승은호 회장을 비롯한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수석부회장들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의 재난을 위로하고 교민들의 성금 $29,567을 전달했다. 성금을 전달받은 케지로 시오조리 일본대사는 "한국인의 좋은 마음을 일본에 잘 전하고, 재난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힘쓸 것" 이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같은 날, 한인회 회장단은 신임 김영선 대사와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에서 승은호 한인회장의 "부지런한 대사님을 모시게 돼서 기쁘다" 라는 인사에 김영선 대사는 "새로 부임해서 한 약속들이 공약이 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 고 대답하며 교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다각적인 현안과 난제들을 풀어나가는데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대사관 귀·부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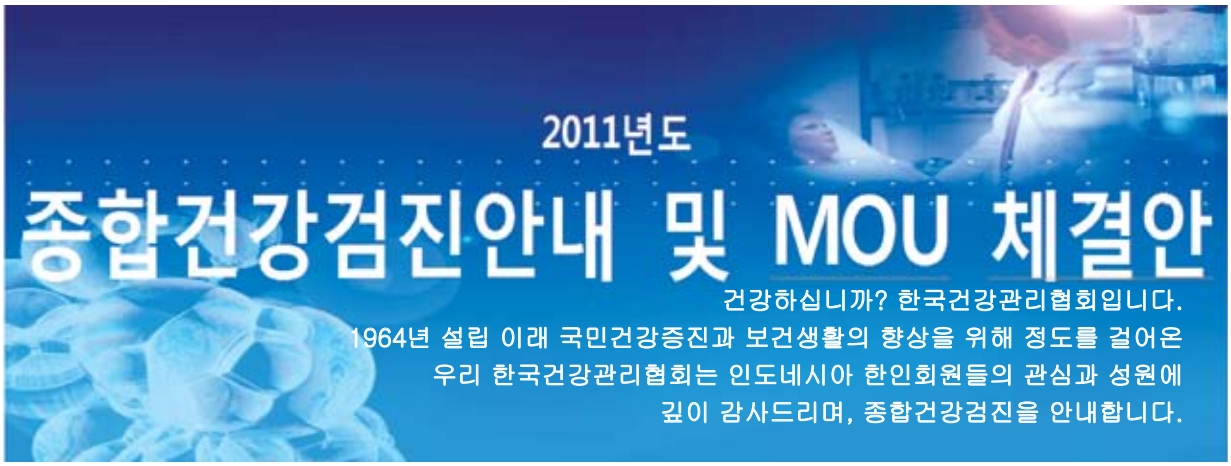
대사관 귀 · 부임자

구 분	귀 임(전임)	부 임(후임)	원소속
2011년 2월	안명수 공 사	이희섭 공사 (3월 부임)	외교부
	김용관 임무관	이미라 임무관	산림청
	홍영규 영 사	이희성 영 사	경찰청
2011년 3월	김호영 대 사	김영선 대 사	외교부
	-	김기혁 서기관	외교부
	-	설태선 서기관	중앙선관위

친숙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건강지킴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센터

재인니한인회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3월에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사전에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회 종합건강검진 안내

건강검진일 기준, 10일 이전에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에 사전예약-전용 예약창구 (http:// www.kahp.or.kr) 통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신청합니다.

구 분	성 명	주민번호	검진희망일	연락처(한국)	연락처(현지)
인적사항	홍길동		11. 03.14.	02-553-6401 010-4577-8327	

주 소	(한국) (인도네시아) 결과지 받으실 곳				
검사유형	기 본 종 합	CT종합	정 밀 종 합	MRI종합	PET종합
선택사항 (택1)	위장조영 위내시경	위장조영/위내시경 두부, 흉부, 경추, 요추	위장조영/위내시경 두부,흉부,경추,요추 대장내시경, CT, 조영	위장조영/위내시경 두부,흉부,경추,요추 대장내시경, CT, 조영 MRI (뇌, 척추 등)	위장조영/위내시경 두부,흉부,경추,요추 대장내시경, CT, 조영 MRI (뇌, 척추 등) PET
희망지부 선 택	(2011년 현재, PET 종합검진은 부산지부에서 가능)				

- 위의 양식에 의거 검진예약의뢰를 담당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검진 의뢰 제목 : '인도네시아 회원 종합건강검진 예약의뢰'
- 담당 : 각 지역 고객지원실 담당자
- 본 협회에서는 해당 수검자의 검진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답장을 통해 예약완료를 통보하겠습니다.

“전국 15개 시/도지부는 질 높은 시설투자를 통해 디지털영상전송장치 도입, MRI촬영장비의 도입, 고해상 위,대장내시경 장비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한시적 이벤트가 아닌 재외국민이 고국을 방문하였을 때 언제든지 마음 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15개 지역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검진의 모든 관점을 수검자 여러분의 시각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신뢰와 만족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종합건강검진 실시
- 사전 인테넷 예약자로 예약확인 후 접수 상담 후 즉시 수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에 따라 종합건강검진을 수검하시면 됩니다.

□ 종합건강검진 결과통보
- 수검자가 희망하는 주소 또는 e-mail로 송부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검진예약 및 결과문의 : 검사 실시 기관 전화 및 방문
- 수검결과 중증질환이 발견되는 경우 유선으로 통하여 우선 결과를 안내해 드리며, 희망하시는 경우 본 협회와 협약되어 있는 3차 진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정도관리 지침 준수 및 검사 신뢰성 제고
- 주요 검진항목 자체검진 및 판독실시
- 검사의 신뢰성 제고
- 정도관리에 준한 검사 장비, 인력 운용(대한임상병리학회 지침준수)

※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본원에 상주하는 전문의선생님들이 직접 판독, 검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전문검진 프로그램

분 류	검 사 항 목	비 고
CT 종합검진	기본종합검진 + CT(두부/요추/경추/흉부 중 택1) + 골밀도검사(두부CT기준)	
정밀 종합검진	CT 종합검진 + 대장검사 + 질초음파 + 종양표지자(CA125, CEA, CA19-9)	
MRI 종합검진	정밀종합검진 + 뇌/척추MRI 중 택1	
PET 종합검진	MRI종합검진 + PET CT + ultrasonography(cardiac,artery,thyroid) + TCD + hormone test	

□ 검진프로그램 수가(단위:원)

검진프로그램명	정 상 수 가		회 원 적 용 수 가 (20% 할인)		비 고
	남	여	남	여	
기본종합검진	25만원대	27만원대	20만원대	22만원대	
CT종합검진	36만원대	38만원대	29만원대	31만원대	
정밀종합검진	57만원대	64만원대	46만원대	52만원대	
MRI종합검진	82만원대	89만원대	66만원대	72만원대	

□ 대장검사
- 검사방법 : 대장조영촬영, 수면대장내시경, 가상대장내시경CT(대장CT)
- 주의사항 : 검사 최소 7일전 협회 내원하셔서 전처리제(하제)수령 및 복용방법 청취
-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3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 무료 발급
- 수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 검된 항목에 대하여서는 추후 재검이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합니다.

한 · 인니, 이젠 스포츠도 협력 시대
MOU-인니청소년체육부와 한국체육대학

한국체육대학(이하 한체대)과 인니청소년체육부가 4월 7일 목요일, 자카르타 스나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사무실에서 코치와 선수를 교환하고 지식정보를 교류하며 합동 연구 활동을 골자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한체대 김종욱 총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들과 대사관의 이동관 공사, 김현기 문화원장, 자유총연맹 조용준 고문, ROTC인도네시아지회 현상범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랄루 윌단 체육부차관, 인도네시아 전국 11개 대학의 체육학과장과 교수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청소년체육부 랄루 윌단(Prof. Lalu Wildan) 차관은 장관이 수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해명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 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체육부문 최고라는 평가가 있다고 말하며 오는 11월에 열릴 빨렘방 동남아시아경기대회(SEA Game)에도 한체대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에 대한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김 총장은 한체대의 설립목적과 1977년 개교 이래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했던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축구와 배드민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기존의 건물이나 운동장을 아침운동을 위한 스포츠시설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기도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에 이어 청년체육부에서는 인도네시아 체육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 한체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보여주는 활동과 시설을 동영상으로 상영하여 양국 스포츠 협력 관계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과 관심은 질의·응답 시간까지 이어져, 한체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체육학 관계자들의 질문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내년부터 한체대에서 코칭아카데미를 개최한다. 무료로 6개월~1년 코스가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도 이 MOU를 계기로 코칭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참석하여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란다." 며 이 협약을 통해 보다 가까워진 양국의 스포츠 관계를 실감케했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중 · 고등부에만 체육학교가 있고 체육전문학교는 없는 실정이다. 2012년에는 대학 규모의 체육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올림픽 및 아세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획득한 수많은 메달의 1/3 이상을 한체대 졸업생 및 재학생이 차지하여 왔음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던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에서도 상당수의 메달을 획득한 한체대 졸업생 및 재학생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한체대와 MOU 체결을 적극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스포츠 분야까지 협력이 확대되고 우호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

토종프랜차이즈 해외로 간다

잉크천국(현지상표 : 오피스박스) 1호 매장 오픈

지식경제부와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국내 토종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려 '프랜차이즈 해외 1호점 개설지원 사업'을 시작해 시장조사, 상권 분석, 법률·회계정보 제공, 현지 파트너 발굴, 매장 홍보 대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5,00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는데, 지난해 이 중에서 선정된 13개 브랜드 중 '채선당'과 '잉크천국'이 인도네시아에 1호점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채선당은 간다리아시티몰에, 오피스박스는 위자야센터에 1호 매장을 열었다.

잉크천국은 이미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17년 된 회사로 잉크나 토너리필 전문업체이다. 한준섭 대표는 "국내에서 26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잉크천국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고무적"라며 "작년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통해 라이선싱 수입 및 원/부자재 수출로 총 50만 불을 벌었고 올해는 총 200만 불의 수출을 예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해서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사업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리필도 그 품질이 정품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리필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다. 한국 리필기술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가운데 정품과 호환되는 리필제품에서 거의 완벽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박스의 품질은 현재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어 상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미래 산업은 저공해 녹색사업이 전체 사업을 리드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재생리필사업은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업이다. 리필사업은 기존의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리필회사 중 가장 선두에 있는 '베네타시스템'의 경우에도 회사의 로고(Logo)부터 친환경을 강조하며 재활용 캠페인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관리 및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피스박스(잉크천국)는 복사나 인화뿐만 아니라 제본, 코딩, 재단, 스캔, 팩스 등 토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주대상으로 한다는 남다른 강점이 하나 더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지난 7년 동안 연간 약 700만 명씩 증가했다. 내수시장 역시 탄탄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인도네시아는 연간 4~6%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매판매는 지난해 월간 10~20%씩 급격하게 성장 중이다. 중산층만 대상으로 하여도 이 사업은 무궁한 전망과 잠재력을 지녔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오피스박스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질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갈 것이다. 코트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활성화되었을 때 교민들의 창업을 돕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교민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있다."며 성실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업이미지를 담아 인니에 진출한 취지와 포부를 전했다.

프랑스의 까르푸, 독일의 메트로 일본의 세븐일레븐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인도네시아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와 KOTRA는 4월 18일, 카페베네, 원할머니보쌈, 이가자헤어비스 등 10개의 토종프랜차이즈를 선정하여 '토종프랜차이즈 세계로 나간다' 출범식을 갖는 한편 해외진출 1호점 지원 사업 뿐 아니라 해외진출 전략설명회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박청원 산업경제정책관은 "앞으로 국내 프랜차이즈업계가 해외진출 1호점 사업을 통해 서비스 수출이 보다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3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 인니 교민 유선 이정화씨 특선! 우현 임채실, 자은 김영덕 입선

지난 19일,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이사장 노복환)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3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상자가 발표 되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도네시아 한인교포 중 최초로 대한민국서예대전에 특선을 했다는 것이다. 특선은 출품한 작품을 통해 특선으로 선정되면, 그 다음 심사위원들의 입회하에 주어진 시간 안에 전혀 다른 작품을 휘호를 해내야 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운영규정이었다. 바로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유선 이정화씨가 특선의 영예를 누린 것이다. 아울러 우현 임채실, 자은 김영덕씨가 입선의 기쁨을 누렸다.

총2,453점이 출품(해외 작품 포함)되어 23% 총 559명의 입상자를 배출한 이번 공모전은 국내의 공모전 중 가장 출품자가 많은 대회로서 대회는 경쟁이 치열하기로도 정평이 난 공모전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1차 심사, 2차 심사로 나누어 채점제로 진행되었으며, 출품작품은 출품자의 이름을 모두 가리고, 지역별 작품을 섞어 재배열하는 등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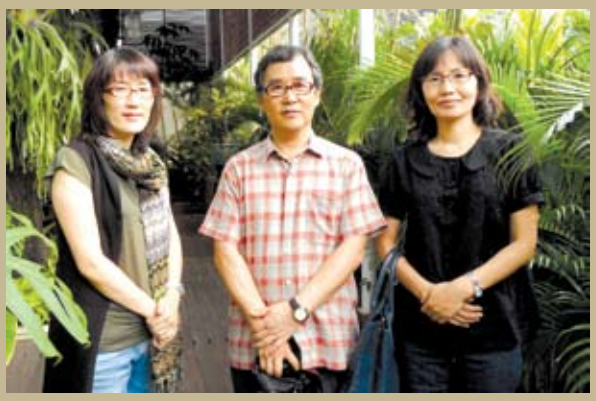
이 공모전은 국전, 미술대전, 서예대전으로 이어지는 정통 맥을 이은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해외교민들은 물론 독일인도 2명이 입상을 하기도 했다. 전시는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2010년 5월 21일(금)부터 ~ 5월 27일(목)까지 7일간 열린다.

한국자유총연맹 신임 김영선 대사 예방

지난 13일,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는 신임 김영선 대사를 예방하고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박동희 지회장을 비롯하여 조용준 고문, 김상태 고문, 현상범 자문위원, 이태복 수석부회장 임원진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대사는 인사말에서 "인도네시아에 온지 2주밖에 안됐지만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포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인동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30여년 외교관생활을 인도네시아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자유총연맹 인니지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임원들은 안보정세토론회를 열어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는 분명한 국가관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돈독한 관계를 맺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 이라고 연맹의 나아갈 길을 밝혔으며,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와 북한의 GPS 도발에 대한 문제, 대북현안문제와 안보의식 등 자유수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는 한국전쟁 등 과거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을 위해 나라사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국단체로써 교민들의 안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졌다.



제23회 대한민국서예대전에<사진 왼쪽부터>
인니 교민 유선 이정화씨 특선,
우현 임채실, 자은 김영덕 입선!!

몇 겁의 인연이 매화로 피었는가

『도처교학』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가르치고 배우기

"교학! 배우고 가르치는 일, 사람의 삶과 뗄 레야 뗄 수가 없고 언제 어디서나 그침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교학은 이미 세계에 정평이 나있습니다."

인재 손인식 선생이 한인들의 교학과 삶의 이야기 50편을 묶은 책 『도처교학』을 출간하며 작품전을 열 계획이다.

『도처교학』

· 제1부 <도처에서 가르치고 배우며>의 글쓰기
김선영 김시현 김영덕 김은숙 김태현 김필수 김효경 김효정 박광호 박상천 방치영 복영빈 선종복 손희정 신돈철 신영덕 안선근 안창섭 양수려 양승식 유세라 이규백 이남숙 이병수 이선우 이수진 이은경 임미진 임준섭 장혜숙 채인숙 최정식 하연경 한선아 허숙의 홍성민

· 제2부 <존경하는 이웃들을 찾아서>의 동참
김재유 김종권 박병엽 박현순 해피 자카르타 이종후 한상재 홍훈섭

· 제3부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문화 탐구>
1. 저서문화 2. 언어문화 3. 미디어 문화
4. 자선문화 5. 교육문화 6. 종교문화

초 대 장

"아포리즘 향기 짙은 묵흔(墨痕)과 붓 터치, 선질과 여백, 구성미가 어우러진 작품과, 창작 단상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삶의 향기를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판기념회 : 2011年 5月 26(木) 오후 5시
작 품 전 : 2011年 5月 26(木) ~ 6月 1(水)
장 소 : 자카르타 한국문화원
Equity Tower 17th Floor
62-21-2903-5650(hunting)

산의 기운 물의 지혜로

초대일시 : 2011年 5月 26(木) 오후 5시

김영선 대사 인니비즈클럽 방문

김영선 대사가 인니비즈클럽(회장 이진수) 월례모임에 동참하여 기업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니비즈클럽은 매주 4번째 목요일에 월례모임을 갖는다. 모임은 세미나와 기업방문을 격월로 개최하는데 이번 4월 28일 모임은 제화를 생산하는 UFU(P. T. UNIVERSAL FOOTWEAR UTAMA INDONESIA) 이석태 사장의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모임이었다.

김영선 대사는 "더운 나라에서 땀 흘리며 수출에 기여하고 현지인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궁금했다. 인니비지클럽 모임에 꼭 와보고 싶었다. 더욱이 오늘은 내가 인도네시아에 부임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니에서 일하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대사로서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돕겠다. 다가가는 대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여러분들 또한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 앞으로 자주 만나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고 축사를 하여 그 자리에 모인 30여 명의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진수 회장은 답사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하나 되고 중소기업이 단결하여 미래를 의논하고 현지에서 큰일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이익이 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고 모임의 취지를 함축하여 전달했다.

공장 방문과 회사 브리핑, 간담회로 이어진 자리에 시종일관 동참한 김영선 대사는 인니비즈클럽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웠다.

이날 모임은 임종려 사장(찌까랑 한기협 부회장)을 비롯한 몇 분의 초대손님과 졸업대상자 및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취업을 지원코자 인니를 방문 중인 신라대학교의 이권호 교수와 이동윤 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회원 기업의 인도네시아인 우수근로자 초청 프로그램을 제의하여 의미를 더해주었으며 정보교류와 환담으로 늦게까지 진행되었다.

인니비즈클럽은 중소기업청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창립되어, 회원사 및 인니 한인기업인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한규성 사무국장은 "좀더 많은 정보와 자료 그리고 한국 및 인니 유관 단체와의 Network를 통해 회원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사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임에 참석하시어 격려 및 지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한껏 고조된 분위기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KADIN 전국 지도자 회의(RAPIMNAS)

까딘은 국가와 민족 발전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
유도요노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2가지 비젼 제시

지난 4월 1일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의 전국지도자회의(RAPIMNAS) 개막식에 한인상공회의소(KOCHAM)를 대표하여 송창근 수석부회장과 최창식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올해 KADIN 전국지도자회의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마카사르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지만, 유도요노 대통령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개막식만 1일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인도네시아가 21세기에 선진국이 되고 15년 내에 경제를 부흥시키도록 하자는 두 가지 큰 비젼을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까지와 다른 특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경제발전을 확대, 가속화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발전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존의 4대 발전 전략 즉, 성장지향 전략, 고용확대 전략, 빈곤감소 전략, 그리고 친환경 전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외국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국 중 9위를 차지했다며, 외국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시장의 방대함과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들면서 외자유치 이전에 국내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더 많이 투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까딘 수르요 술리스토 회장은 유도요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부각료들, 외국상의 대표, 재계 주요인사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교부, 상업부, 환경부 등의 7개 정부부처 장관과 각각 협력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까딘은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며, 까딘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파트너임을 분명히 했다.

술라웨시섬 마카사르에서 열린 까딘 전국 지도자 회의에는 전국에서 1500명이 참가했으며, 까딘 33개 주 대표가 모두 참석하였고, 본 회의에서 논의된 3가지 주제는 첫째 기간산업 건설 실현, 지역 경제 발전 가속화 및 연결성, 그리고 아세안 경제공동체였다. 이중 특히 기간 산업 건설을 빠른 시간 내에 실현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개발은행(Bank Pembangunan Indonesia, BPI)의 부활 안이 논의 되었다. BPI는 기간산업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 투자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은행으로 이전에 있었다가 만디리은행으로 통합된 바 있다. BPI 재 설립을 위한 자금은 정부 소유은행에서 여유자금을 모아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까딘 전국지도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장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정부소유 은행에서 모은 여유자금으로 인도네시아 개발 은행(BPI) 설립
2. 인도네시아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간시설 건설 실현 가속화
3. 부족한 에너지 필요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특히 인도네시아 동부지역을 위해 정부,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간 '민관협력체제' 를 통해 자금 공급에 상승 효과
4.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의 접근성 제고
5. 독과점 방지를 위한 설탕 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함
6. 사업 기회 확보와 전략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 까딘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
7. 까딘은 지방의 중소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

본 회의에 참가한 송창근 수석부회장은 대통령의 국정방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와 재개가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KOCHAM은 다양한 기회를 통해 까딘 및 인니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대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ww.kmi.re.kr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 개최

'2012 여수세계박람회'홍보행사 및 KMI-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MOU체결식도 함께 열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학소)은 6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국제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을 통한 협력' 을 주제로 한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해양수산포럼에서는 양국 정부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양국 해양수산정책 및 전략을 소개하고 정부 또는 민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 사전 행사로 6월 8일(수), 오후 4시부터는 리츠칼튼 호텔에서 2012 여수엑스포 홍보행사를 비롯해 주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간 MOU체결식이 열린다.

사전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대사, 2012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김근수 사무총장, 승은호 주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장,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위원회 위원 (장관급) 등 양국 해양수산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한-인도네시아 해양수산포럼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포럼을 통해 양국 해양 · 수산 · 물류 분야 정책결정자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해양수산 분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됨은 물론,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럼 사전행사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홍보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국가의 행사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운, 항만, 국제물류, 수산, 해양환경, 해양영토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정책연구와 국제협력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국내외 해양수산 업계에 잘 알려져있다.

2012 여수엑스포 홍보 행사 KMI-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MOU 체결

- 일시 : 2011년 6월 8일, 오후 4시~
- 장소 : 자카르타 리츠칼튼 호텔
- 주관 : KM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MMAF)
- 참여 기관(사전 초청된 VIP 위주로 양국 20명, 총 40명 참석)

*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IOC 소속 장관 다수 참석 예정

제1차 한-인도네시아 해양 포럼 개최

- 일시 : 2011년 6월 9일, 10:00~16:00
- 장소 : 해양수산부 그랜드볼룸
- 주관 : KMI, 인도네시아해양수산부(MMAF)
- 참여 기관 : 양국 한-인도네시아 해양포럼 참석 기관 및 양국 해양 · 물류 · 수산 기업, 일반인

재인니한인회 YPAC 에 성금 전달

4월 20일, 재인니한인회는 2010년 불우이웃돕기 송년의 밤 행사 수익금의 전액 7,000만 루피아를 자카르타에 있는 YPAC(Yayasan Penderita Anak Cacat)에 성금했다. YPAC는 인도네시아 장애아들을 돌보는 사회단체이다. 한인회와 재단 측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류가 나날이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양국의 협조와 화합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고 인도네시아인들과 한인들이 서로를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는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인도네시아 한인회

2011년 한인회 임원 찬조금
Korean Association

번 호	직 책	성 명	회 사 명	납입 연도	금 액($)
1	한인회 회장	승 은 호	KORINDO GROUP	2011	20,000
2	한인회 수석 부회장	조 규 철	PT. DONG JUNG INDONESIA	2011	10,000
3	한인회 부 회 장	김 주 철	PT. STARCAMTEX	2011	5,000
4	한인회 부회장겸 감사	조 용 우	외환은행	2011	5,000
5	자문 위원	김 우 재	PT. KOINBUMI/MUGUNGHWA	2010	1,000
6	자문 위원	박 헌 식	PT. DONGAN KREASI INDONESIA	2011	1,000
7	이 사	강 주 석	PT. SERIM INDONESIA	2011	1,000
8	이 사	강 호 성	PT. ANUGRAH CIPTA WOULD INDONESIA	2011	1,000
9	이 사	김 두 련	PT. MIWON INDONESIA	2011	1,000
10	이 사	김 영 도	PT.QUTY KARUNIA	2011	1,000
11	이 사	김 영 욱	PT. GAYA INDAH KHARISMA	2011	1,000
12	이 사	김 종 성	PT. BONGMAN INTERNATIONAL	2010/2011	2,000
13	이 사	노 예 범	PT. SAM PUTRA INTI	2011	1,000
14	이 사	류 봉 열	PT. HANIL INDONESIA	2011	1,000
15	이 사	석 웅 치	PT. DAYUP INDO	2011	1,000
16	이 사	안 홍 제	PT. KOLON INA	2011	1,000
17	이 사	양 태 화	PT.BOSUNG INDONESIA	2011	1,000
18	이 사	이 상 일	PT. UIB	2011	1,000
19	이 사	이 준 하	PT. DAELIM INDONESIA	2011	1,000
20	이 사	장 주 현	PT. INKO PRIMA UTAMA JAYA	2010	1,000
21	이 사	전 민 식	PT. POWERTECH INDONESIA	2011	1,000
22	이 사	정 용 완	PT. HUNG A INDONESIA	2011	1,000
23	이 사	최 재 경	KAL	2011	1,000
24	이 사	현 정 규	PT.MEKAR SAMMI JAYA	2010/2011	2,000

직스(JIKS)

SMA Negeri 68 Jakarta와 자매결연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선종복)는 지난 4월 1일, SMA Negeri 68 Jakarta(이하 SMA Negeri 68, 교장 Bapak Pono Fadlullah)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자매결연은 교장, 교감, 학생으로 구성된 SMA Negeri 68 대표단과 JIKS 관계자 및 학생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및 문화 교류를 기본 골자로 한 약정서를 교환함으로써 체결되었다. 이번 양교의 자매결연은 상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및 문화 교류가 가능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카르타 Salemba 지역에 위치한 SMA Negeri 68은 학생수가 대략 800여명으로 시설 및 교육 수준이 매우 우수한 학교로 알려져 있다.

JIKS의 SMA Negeri 68과의 MOU 체결은 UI(인도네시아국립대학)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일련의 JIKS의 활발한 교육 및 문화 교류를 위한 행보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전문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창단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선종복)는 지난 3월 30일 재외한국국제학교로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창단식을 JIKS 대강당에서 가졌다.

창단식은 정무웅 JIKS재단부이사장, 최원금 세계기아구호센터장, 현지 고아원, 유치원 원장 등 교민 및 지역사회 관련 인사 1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학부모샤프론봉사단원(단장 장문선) 31여명과 초중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종복 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샤프론봉사단이 지역사회봉사의 구심점이 되어 봉사의 참의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비영리자원봉사단체(NPO)인 사단법인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산하에 있는 학교봉사단 조직으로 앞으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 라는 취지에 맞게 학부모가 주축이 되고 학교와 학부모, 교민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하게 된다. 학부모샤프론봉사단은 창단식에 앞서 지난 3월 24일, 봉사활동 운영 방향 및 지도 지침, 활동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3급 자격연수를 마쳤으며 전원 3급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샤프론봉사단은 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연수를 통해 1~3급의 자격을 갖추도록 되어있다.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창단으로 학교, 학부모, 교민사회, 지역사회 상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봉사활동이 계획 · 실행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의 참의미를 깨닫게 할뿐만 아니라 자기 계발은 물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 차세대 자원봉사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생활지도 효과와 교민사회에 건강한 풍토를 조성해줄 새바람으로 학부모샤프론봉사단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신임 김영선 대사 방문

2011. 4. 8(금) 신임 김영선 대사 내외가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를 부임 후 처음 방문하였다.

김영선 대사 내외는 정무웅 재단부이사장, 선종복교장과 여러 교직원, 초중고 학부모회 대표들의 영접을 받고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및 부회장으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전해 받았다.
선종복 교장의 안내를 받아 도서실, 자연학습장, 수영장 등 학교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교실에서는 수업하는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 인사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칠판에 써보이며 학생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 후 다목적실로 자리를 옮겨 선종복 교장으로부터 학교의 현황과 미래 발전상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은 김영선 대사는 이번 학교방문을 통해 JIKS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받았다며 학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리더십 캠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교장 선종복)는 안쫄 머큐리호텔에서 중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4.18.(월)~19. 1박 2일간 JIKS 12학년 7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가졌다.
정치 · 경제 · 외교 ·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JIKS 글로벌 리더십 캠프는 Kirk Kauffeldt(UPH 부총장) 박사의 '글로벌 리더십' 에 관한 기조 강의를 시작으로 송창근(재 인니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 KMK 대표의 '경제 리더로서의 창의 경영을 통한 비전 트레이닝', 손인식(전 인니문화예술총연합회장, 서예가) 선생의 'Culture Leader', World vision의 Sari Estikarini의 '봉사와 나눔의 실현' 등 각계 인사들의 초청 강연과 선종복 교장의 'JIKS Global Leadership' 등 다양한 주제 강연이 마련되었고, 학생들은 강연을 들으면서 리더로서 갖추어야할 책임과 소양,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회 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참가 학생 모두는 직접 비전을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 프로그램인 '생애의 연(鳶)', '컬러 리더십', '인생 설계도', '생존 리더십', '자성예언', '창의적 챌린저'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확고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세우고 내면화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계기로 참가 학생 모두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ARCOS GIN Conference 2011

동아시아국제학교협의회 2011

취재 : 한인뉴스 학생기자 김나연 (JIS 11)

다음 EARCOS GIN conference 는 2월에 ISM (International School of Manila)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www.global-issues-network.org

요즘 TV 뉴스, 신문 기사를 통해 수많은 자연재해 발생을 접한다. 자연재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임이 근거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만은 없다.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500여 명의 동남아시아의 국제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EARCOS GIN conference (East Asia Regional Council of Schools Global International Network conference 이하 GIN)에 참여해 JIS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식을 교류했다.

44개 학교가 참여한 가운데 SIS (Seoul international School), SFS (Seoul ForeignSchool) 등 한국의 국제학교들도 참가했다.

GIN은 유럽에 있는 6개의 국제학교들이 유럽 World Bank의 전 부회장인 Jean-Francois Rischard의 책 High Noon : Twenty Global Problems, Twenty Years to Solve Them을 토대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4번째 열린 EARCOS GIN은 JIS에서 주최하여 200여명의 JIS학생들이 작년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했다. 학생들은 직접 500여 명이 묵을 숙박시설부터 NGO 강연자 초청,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을 기업들에게 스폰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Opening ceremony때 인도네시아 교육부장관, Dr. Ir. Muhammad Nuh이 참가해서 더욱 더 뜻 깊었다.

GIN은 자연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점도 상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방안도 생각하며, 찾은 아이디어를 나눈다. 예를 들면 가난, 보호동물의 불법매매, 아동노동, 심각한 벌목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또 이런 문제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교류한다.

올해 JIS 학생들이 외국에서 초청한 강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0살이 채 되지 않는다. 나이가 제일 어린 Zachary Bonner는 7살 때 자발적으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태풍 카타리나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물자를 수집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Little Red Wagon이라는 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나이, 학력, 피부색,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은 정말 구차한 변명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세계적 문제들은 방 청소와 같다. 마구 어질어진 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지만, 한 곳부터 차근차근 치우다 보면 어느새 방이 깨끗하게 되어있는 것처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차근차근 어느 한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이 세계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갓 16살이 된 Kids vs Global Warming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Alec Loorz는 이런 세계적 문제가 하룻밤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가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생인 Robert Burroughs와 20대의 Sheena Matheiken은 각각 Inspi[red] Soccer와 The Uniform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그들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누가 물이 흐르는 수도꼭지를 잠글 것인지.

이번 GIN에서 거론된 세계적 문제는 생소하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너무나도 바쁜 일상에 쫓기고 무관심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잊고 지낸다. 이번 GIN 모토 Our Future, Our Choice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선택)처럼 피 같은 주말을 만끽하는 대신 여러 문제점들을 토론한 600여 명의 학생들을 보니 우리의 미래가 밝음을 깨달았다.

GIN에 참석한 학생들의 교통수단만으로도 약 333,220k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학생들은 나무 1,666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김재원 선생의 '보로부두르 그리고 살아 숨 쉬는 고도, 족자이야기'

도시의 역사만큼, 쌓아올린 석공의 손길만큼 아무리 들어도 새롭고 다시 알게 되는 족자와 보로부두르 강좌. 한인회 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재원 선생의 이번 강의에서 그 기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재원 선생은 이날 강의에서 문화와 교육, 관광의 도시인 족자와 보로부두르의 암호문을 풀어주듯 세심한 강의로 문화센터를 가득 메운 청자들에게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뿌리를 보여주었다.

* 역사, 문화, 교육, 관광의 도시 족자

인구 약 350만 명(자와인 99%), 중부JAWA에 위치한 족자카르타는 산-왕궁-바다를 동선으로 하여 남북 일직선으로 계획된 도시이다. 1946~1949년까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임시수도이기도 했던 이 도시는 힌두문화에 근거한 마자빠힛(Majapahit)왕조(1293 - 1527)때 왕권이 확립되고 부흥기를 맞아 역사, 문화, 교육은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고도로 유명하다. 내륙바틱과 은세공의 중심이며 국립가자마다대학교를 비롯한 16개의 종합대학을 비롯해 100여 개의 고등교육기관과 많은 박물관이 있어 도시의 역사만큼 교육의 산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힌두와 불교사원을 비롯한 많은 사원과 왕가의 유적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권의 역사책처럼 지나온 시간의 삶과 꿈을 얘기해주고 있다. 머라피화산(G. Merapi)과 파랑트리티스(Parangtritis) 해변도 꼭 찾아가보기를 권한다. 또 한 가지, 족자에 가면 꼭 베짜를 타고 거리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기를!

* 보로부두르

보로부두르 사원은 족자카르타의 북서쪽 42킬로 지점 ELO강과 PROGO강이 합쳐지는 성스러운 장소에 세워져있다. 8세기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원은 석재를 짜 맞춘 내진설계로 오늘날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건축 후 약 1,000년간 잊혔던 이 사원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총독대리 Thomas S. Raffles 경이다(1814년). 이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재건을 하였고 1991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사원의 회랑에는 석판이 배치되어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를 시계방향으로 순례하며 욕계-색계-무색계를 올라 마침내 수미산에 이르는 형상이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많은 상징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로부두르는 인도네시아의 크나큰 자부심이다.

족자와 보로부두르를 아홉 번이나 찾아갈 정도로 애정과 관심이 많은 김재원 선생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와 특성은 물론 사진을 찍으면 좋은 장소, 일몰이 아름다운 장소, 예전에 시장이 있던 자리까지 현장감 넘치는 강의로 유익한 지식을 제공해준 강의였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청자들은 12일에 떠나는 한*인니문화연구원의 <족자와 보로부두르 문화탐방>에 동참할 예정이다.

안내

한*인니문화연구원

198회 문화탐방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한인회에서 8시 출발

탐방지 : 도자기센터 Tanah Baru 탐방 및 실습, 끄망 갤러리 DUTA 외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Corp(카페)
http://cafe.daum.net/IKCC

제16회 헤리티지 열린강좌
– 카메라의 기초원리 및 초급보정

사진은 '뺄셈의 예술'

지난 4월 30일, 인도네시아헤리티지소사이어티는 지난달에 이어 제2회 사진강좌를 열었다. 헤리티지도서관에서 열린 이 강좌에서 엄종한 사진협회장은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었는데 막상 인화된 사진을 놓고 보니 그때의 기분이 전혀 안 난다는 경험은 누구라도 겪어보았을 것이다. 사람의 눈은 넓은 각도에서 눈앞에 펼쳐진 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카메라렌즈는 그 포괄각도 범위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 그냥 보기에 멋있고 아름답다고 해서 무조건 셔터를 눌러서는 안 된다.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작품' 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면 구도를 생각해야 한다" 며 좋은 사진, 작품이 되는 사진을 얻고 싶다면 주제를 강조하여 시선을 끌어 모으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뺄셈의 예술이다. 셔터를 누르기 전에 무엇을 뺄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주제에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만 원칙에 얽매이기보다 작가의 주관적 사고, 창조적 시각으로 화면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만의 감성으로 만들어진 좋은 사진작품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임을 강조하고 싶다" 고 했다.

포토 스케이프로 사진을 보정하는 법까지 강습을 마친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던 자카르타의 현실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강좌가 상당히 값진 자리였다며 이렇게 실생활에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강좌가 많았으면 좋겠다며 열의를 보였다.

발리한인바자회 Koreans Bali Bazaar

재발리한인회, 재발리한인부녀회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날짜 : 2011년 6월 2일, 10:00 ~ 19:00
장소 : 발리한인회 사무실 앞 광장
프로그램 : 벼룩시장 장터 및 한식 먹을거리 장터, 음악밴드 등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임을 홍보하며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바자회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생활과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사랑나누기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한인들을 위한 영사 방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 : 안복희 바자회추진위원장 081-3380-86990
이태우 한인회총무 081-2379-39452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인도네시아어 강좌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 의 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 락 처 : 521.2515 / 0816.1883.224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 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 관람.
한·인니문화연구원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190.9976) 신유희 (0818.708.228)

월화차회

모임일정 : 매주 화/목요일.10:00.
강 의 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 락 처 : 720.4211 / 0818.491.325

한국어 강좌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Sel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투자콘설팅.M&A.부동산. 저당권.자원개발.채권회수.파산관재.가사.상속.지적재산권.소송. 중재.재단법인.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변리사.파산관재사
(한인회 자문변호사)
HP> 0816.1911.245
Tel> 021.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타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니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1.520.1915
핸드폰 > 0811.183.3164
jkt_kimhoil@msn.com

나를 깨우치고 배우리라

살아 숨 쉬는 고도古都를 다녀와서

이 동 균(정형외과 전문의)

여행은 인간이 하고 싶은 원초적이고 태생적인 욕구인가. 나의 혼은 아직 족자와 같이 숨 쉬는 것을 느낀다. 족자, 문화의 고향, 하루가 영원임을 가르쳐 준 도시, 지금도 족자를 생각하면 다시 사랑하고 안기고 싶은 곳이다. 인니문화탐방은 4월 12일 오전 7시 50분, 족자 행 비행기를 타면서 시작되었다. 1시간 남짓 후, 일행 30명은 족자공항에 내려 미리 준비된 디엥고원 행 버스에 올랐다. 회원들 모습은 이른 아침 새들의 모습처럼 빠르고 가벼웠다. 가는 중간에 길이 좋지 않아 여러 대의 작은 차량으로 나누어 타고 고생도 했지만, 우린 문화 탐방 여행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었다.

'신의 보금자리' 라는 뜻을 가진 디엥고원은 족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130Km 떨어진 차량으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쁘라우 화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해발 2000m, 화산 칼데라 안의 산악마을이다.

디엥고원을 가는 도중 끝없이 펼쳐지는 계단식 밭, 산, 초록, 소박한 시골풍경... 특히 고랭지 농업인 채소, 감자, 옥수수, 수수밭, 차밭이 많았다. 주변 경치가 좋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차창 밖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며 학창시절 좋아했던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을 떠올렸다. 고원 정상 가까이에는 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우리의 디엥고원 첫발은 7~8세기 건립된 자바 최초 힌두사원인 빤다바(Pandhava) 사원군 중 아르주나 사원 (Candi Ar Juna)이었다. 고원 분지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으며 왕들의 명상과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우산을 들고 힌두 서사시 마하바라따 빤다빠의 고전을 들으며 시끼당 분화구(Kawah Sikidang)가 있는 화산지대로 향했다. 1964년에는 화산이 폭발하여 초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자연의 대섭리 앞에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환희와 감동을 주는 것인가? 분화구의 중심은 아직도 매캐한 유황연기와 50평 남짓한 용광로 같은 분화구에 섭씨 150도의 물이 김을 내뿜으며 펄펄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아 숨 쉬는 분화구였다. 살아 숨 쉬는 지구를 새삼 느꼈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대자연의 조화를 보여 주는 와르나(Warna)호수로 갔다. 이 호수는 날씨에 따라 보이는 색이 다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넓은 화산호수로 날씨가 좋으면 무지개색깔이 보인다는 호수다. 안타깝게도 비가 내려 7가지 색깔은 보지 못했지만, 그 호수만이 갖는 고유의 파란색, 초록색, 진한 남색, 연두색과 주위에 산, 수목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다. 마치 태곳적 자연의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여행 둘째 날을 위해 디엥고원을 내려와 우리 일행은 보로부두르 사원 안에 있는 Hotel Manohara 로 갔다. 이곳은 과거에 사원을 복원하기 위해 만든 숙소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보로부두르 동쪽 초입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른 새벽 4시 반에 랜턴을 비추며 사원에 오르기 시작했다. 주위는 캄캄하였으나, 불보살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사원으로 올라갔다. 서서히 여명이 밝아 오면서 사원 동쪽 방향에 연기를 내뿜는 불의 산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해발 2968m의 머라삐 화산이 햇살을 받고 잠시 나타났다. 세계 3대 불교 사원 중의 하나인 보로부두르. 긴 긴 시간 애태우다 수천 년 전의 부처님을 만나는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랴, 그 님의 가르침을 내 눈으로 보는 영광을 어디에 비교하랴. 가슴 깊이 묻어둔 님에 대한 그리움이 불씨가 되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보로부두르의 명칭은 언덕위의 10층 불탑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불교의 세계관을 가장 잘 나타낸 건축물로 대승불교, 티벳 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사원의 벽에 새겨진 수많은 여정과 설화... 나는 부벽의 한쪽 모퉁이에 기대어 주벽의 부조를 보면서 도공들의 돌 쪼는 소리, 불자의 기도소리, 멀리 머라삐 화산의 힘찬 용트림을 느끼는 듯 했다. 눈을 돌려 동쪽을 보니, 내일 찾아 볼 화산의 힘찬 연기가 어느 순간 안개에 싸여 보이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멀어져만 갔다. 마치 인연을 다한 옛 사랑처럼. 이재원 선생님의 부조 하나하나에 대한 열정적인 설명을 열심히 듣고 사진기 셔터를 누르며 점점이 회랑을 한 층 한 층 돌고 돌아 열반의 경지인 스뚜빠(STUPA)에 이르렀다. 깨달음의 경지, 우린 분명 그 곳에 가 있었다. 스뚜빠 이곳은 순례자- 불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남녀노소 있는 자 없는 자- 모두 하나의 해탈자인 것이다. 나는 하늘을 보며, 허공을 보며, 가슴이 확 트이고 표현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의식도 무의식도 없는 하늘, 그 해탈의 세계에 순간 몰입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경이로움으로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다.

나를 깨우치고 배우리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이해하리라. 눈을

감고 명상 한 후, 정신을 차려 주위를 보니 3,000m 여러 산들이 나를 내려 보고 있었다. 사원 안에서 내려와 밖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각자 추억의 사진을 만들며 하나둘씩 호텔로 내려왔다. 영화관에서 보로부두르에 관한 영상물을 보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손에 닿을 듯 서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을 보면서 좀 더 환해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비싼 커피(7만 루피아)를 마시러 아만지오 호텔로 갔다. 이 호텔은 사생활 비밀이 보장되는 호텔이라고 했다. 유명인사들이 묵는 곳으로 신전에 들어 온 것 같았다. 그리스신전과 같은 이 호텔은 보로부두르를 지키는 요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다. 이곳에서 보는 보로부두르 사원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프람바난(Prambanan)사원 가는 길에 우리는 인도네시아 인상파 화가– 인도네시아의 고흐라는 –아판디(Affandi)박물관을 둘러보기로 하였다. 현재는 고인(1907–1990년)이 된 화가의 집은 조그만 개울이 힘차게 흐르는 제법 큰 도로 옆에 있었다. 왼손으로 파이프 담배를 물고 오른손으론 그림물감을 통째로 들고 손가락, 발, 등의 자기 신체를 사용하여 단 60분 만에 화폭에 그리는 독특한 화풍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우리는 박물관 안내인의 설명에 따라 그림을 감상하고 그가 생활했던 방, 생전에 그림 그리는 모습을 비디오에서 보았다. 그림을 감상하면서 마치 아판디가 내 옆에서 보는 것만 같았다. 늘 착각 속에 사는 것이야 말로 자유로우며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프람바난사원은 힌두사원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힌두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원은 힌두왕조인 리까이 삐까딴 왕이 불교왕조인 사일렌드라 왕조의 프라모다와르다니를 신부로 맞이하려는데, 신부의 가족의 반대로 전쟁이 발발하여 사일렌드라 왕조에 승리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 사원 중 가장 큰 탑은 시바신전이며 신격화 된 동물인 황소(시바신이 타고 다녔다는 소)가 있었다. 보로부두르가 남성적인 사원이라면 프람바난 사원은 여성적이며 왕자의 불타는 사랑을 담은 사원이다. 사랑하는 여인을 끝내 소유하지 못하자 탑으로라도 곁에 두고 싶은 왕자의 염원을 담은 사원이다. 또 프람바난 사원에는 라마야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사랑의 사원이라고 하나보다. 이제 우리는 추억 속의 기차를 타고 보리수 냄새를 맡으며 불교사원인 세우 짠디(Sewu Candi)로 갔다. 사원 입구에는 사천왕들이 지키고 있고 저녁 비를 맞으며 사원들이 우리를 맞는다. 쁠라오산 사원을 포함한 프람바난 사원 부근에 있는 많은 사원들... 무수한 사원의 유물 잔해와 부서진 조각들을 보면서 한 시대를 풍미하며 모든 종교를 섭렵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문화탐방 마지막 날 아침 6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우리들은 베짜를 타고 Pasar Kranggan과 중국인 마을을 둘러보았다. 소박한 서민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베짜는 인도네시아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일종으로 자전거에 사람을 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 생각이 났다. 추억 속의 자전거였다. Phoenix Hotel 투어 때는 호텔의 역사, 45년 이후 독립전쟁 때 수까르노가 임시로 사용했다는 간이집무실 등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인 머라삐 화산 피해 지역으로 갔다. 황량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화산 쇄석물, 화산재로 인하여 집이 파묻히고 나무들이 거의 하얗게 죽어 있고 므라삐 산의 산 모양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자연의 가공할 파괴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머라삐 분화구 연기는 산 정상 기상이 변화가 심하여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마지막 탐방의 하이라이트인 Ullen sentalu Museum, Seni dan Budaya Jawa 박물관으로 향했다. 이 박물관은 개인박물관으로 일명 족자왕궁박물관이라고도 한다. 역대 왕들의 계보와 결혼, 왕자, 공주 등의 가족들의 역사가 그림과 사진으로 보관되어 있다. 또한 바틱의 도시답게 솔로 왕가와 족자 왕가의 바틱의 차이점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뜻깊은 탐방이 되었다. 점심식사는 박물관 2층 레스토랑에서 샹송을 들으며 맛있고 정갈한 인도네시아식 뷔페로 하였다. 주위의 풍경이 고풍스런 아름다움이 있어 이때 비가 내려 주기만 하면 마치 탐방 회원들이 공주와 왕자가 된 것 같은 과거 회상 속의 한 장면이 될 것 만 같았다. 우리 탐방회원들은 소녀 같은 모습으로 낭만을 찾으며 서로 사진을 찍어가며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문화 탐방을 하면서 필자는 문화와 역사는 단지, 과거 순간의 기록만을 알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를 알려주는 지침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문화를 진정 이해하고 배우려고 할 때 인도네시아 문화는 항상 열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 올 것이다.

대사관에서 인니 현대사 강의를 듣다

"사건과 현상의 중간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장 소 : 한국대사관
일 시 : 2011. 4. 21. 12:00
강 사 : 김문환 한인뉴스 논설위원

이 강의는 대사관 직원들이 주재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현지 업무에 적절히 대처하기를 바라는 김영선 대사의 뜻으로 마련되었다. 김 대사는 강의 전에 "현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애정 없이는 원만한 업무처리가 힘들다. 오늘의 강의는 선인들의 노력과 땀을 되새기면서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데 의의가 있으며 우리가 함께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있을 것" 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사건과 현상의 중간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라고 강의의 서두를 연 김문환 선생은 인도네시아의 현대사를 1945년 '독립선언' 을 기점으로 정의했다. 독립선언 이후에도 네덜란드, 영국과의 지배권 마찰, 이념으로 피 흘려야 했던 내분의 역사적인 순간들로부터 2004년 직선제 정,부통령 선거로 민주화가 성숙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기까지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연대별로 정리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의 인맥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종교문제든 어떤 문제에서든 현지인들을 비하하지 말 것 등 한국교민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이날의 강의는 숨 막히게 전개된 현대사에서 형성된 인도네시아 정관계 핵심인물, <알리 무르또뽀, 하비비, 쁘라보워, 유숩 칼라로 대표되는 66세대, 유도요노 장인인 사르워 에디 위보워 패밀리, SBY, 메가와띠의 장군들>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여준 강의였다. 또한 마디운 공산당 봉기(48.9.18.) 때 사건의 배후인 소련측 인물 '무소(Musso)' 와 한국에서 수입한 쌍용차 '무소' 에서 느꼈던 인도네시아 인들의 미묘한 감정, 대일청구권 협상 타결로 받은 배상금으로 인도네시아에 건설된 건축물들,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관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 등, 선생이 34년 동안 살아온 인도네시아 생활체험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더욱 현장감 있는 강의였다.

김영선 대사는 역사 속의 인맥(최근 현대사 중심), 인도네시아 문화의 특성과 한국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주요 연보를 짚어나간 "김문환 선생의 강의가 인니를 이해하는데 좋은 바탕이 되었다. 인니 생활을 하며 더욱 공부하겠다" 며 선생의 열강에 고마움을 표했다.

[인도네시아 현대사 연보]
1945년 독립선언
1948년 마디운 공산당 봉기
1949년 인도네시아연방공화국 탄생
　　이슬람국가 운동(NII, DI)
1950년 말루꾸공화국(RMS) 선포
1954년 버클리마피아 태동
　　-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의 인니 집중 연구
1955년 반둥 아시아아프리카회의 - 북한과의 유착
1958년 대일 청구권 협상 타결과 혁명정부 반란
　　- 경제개발과 국가분열
1962년 이리안자야 합병과 최계월 회장의 인도네시아 진출
1965년 930 공산쿠데타 - 인니, 공산화 직전에 급선회
1966년 수퍼스마르 - 공산당 해산, 수하르또의 실권 장악
1976년 동띠모르 27번째 주 편입
1990년 중국과 국교 재개
　　-군부의 반대에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국교
1992년 메가와띠 PDI 당수 취임 - 장기집권에 대한 도전
1996년 영부인 띤의 사망
　　- 국민차 프로젝트
1997년 외환 위기/IMF 관리 체재 - 정권몰락의 촉매
1999년 구스두르 대통령 취임 - 회교세력 규합, 민주화
2004년 직선제 정,부통령
　　- 민주화 성숙, 지방자치제 본격화

인도네시아 인터폴과 경찰주재관 공조로 인질강도 일당 6명 전원 검거

최근 자카르타 시경 수사팀은 우리 동포사회, 우리 공관 및 우리경찰과 협력하여 자카르타 근교에서 아국인 2명을 납치 감금 폭행하고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빼앗은 강도사건의 조직범 6명을 전원 검거하여 구속하였습니다.

이들 강도범은 아국인 3명, 현지인 3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월 하순경부터 자카르타 근교 외딴건물을 임대한 다음, 선원으로 취업할 사람을 모집해달라며 자카르타의 한 교민에게 전화로 접근, 해외 취업을 희망한 2명의 아국인을 소개 받아 이들 피해자들을 2월과 3월에 각각 자카르타로 입국토록 유인, 납치하여 최장 40일간 감금 폭행하며 환전상을 통해 돈을 강탈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주재국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피해자들을 서부자와 소재 한 호텔 앞 노상에 유기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중 아국인 범인 1명은 지난 2002년 3월과 6월에도 다른 아국인 2명 및 현지인 수명과 함께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한치 또는 동신주를 다량 소지하고 있다며 싼값에 팔 것처럼 속여 한국의 기업인 3명을 각각 자카르타로 입국하도록 유인, 납치 포박 감금 폭행한 후, 한국의 가족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자카르타 소재 환전상을 통해 송금 받아 갈취하고도 피해자 1명은 살해하고 2명은 살해미수에 그친 강도살인사건의 장본인입니다. 동인은 이번 검거되기까지 10여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체류하며 도피해왔습니다. 당시 2명의 아국인은 검거, 인도네시아에서 형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송환 되었는바, 1명은 무기징역에 1명은 3년 추가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구인 부탁을 받아 해외취업을 주선해 줄 경우,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환전상을 하며 입금과정 및 수취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불특정인에게 입금상당액의 현금 지불 또는 계좌이체해 주는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범죄흐름의 한 통로가 되어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자신이 그러한 범죄의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한인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 우리 이웃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이번사건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신중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인 범죄 피해 상담창구 개설

최근 한인들만을 전문적으로 노린 차량절취 및 빈집털이 등 범죄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한인 대상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조기 해결 지원을 위해 재인니한인회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상담창구를 개설한 바, 관련 용무가 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사관) 이희성 영사 : (주간) (021) 2992-2500 (Ext.125)
  (야간 및 휴일) 0811-852-446

- (한인회) 김재민 사무국장 : (021) 521-2515

이 기고문은 작물육종학의 최고 권위자이신 최해춘 박사께서 인니교민을 위해 특별히 보내 주신 식량안보에 대한 진단서이다. 지난 달에 지면의 한계로 전문을 싣지 못하여 후반부를 실으며 최박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쌀과 식량 안보 ·2

솔재 최 해 춘 농학박사

1944년 경북 경주 출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박사(작물육종학) /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벼유전육종과장 / 강원대 생명공부 겸직교수
우량 볍씨 개발(80여 종)에 의한 식량증산 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농림부장관표창,
제1회 공무원문예대전 저술상(행정자치부장관),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 한국작물학회 학술상 및
공로상, 한국육종학회 학술상(품종상), Koshihikari International Rice Prize 수상.『쌀을 알자』, 『육종실험길잡이』,
『Rice Culture in Asia』, 『함께 어울리는 참나의 삶』, 『쌀을 알자Ⅱ』 등 10여 권, 논문 200여 편 저술

세계 쌀 수급 전망

쌀은 세계 24억 인구의 주식량이며 그들이 1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20% 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쌀 중심 식사를 하고 있는 아시아의 22억 인구는 1일 섭취 칼로리의 2/3를 쌀에서 취하고 있다. 전 세계 쌀 생산량은 '85 ~ '93년 기간 중 연간 1.8%씩 증가하여 '65~ '75년간 3.6%, 그리고 '75~ '85년간 2.8%씩 증가한 것에 비하면 최근의 증가율은 크게 낮아졌다. 국제벼연구소(IRRI)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의 쌀 소비량이 '90년의 466백만 톤보다 69% 증가한 745백만 톤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벼 재배 면적의 획기적인 증가가 없다면 이와 같은 수요 증가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히 관개 논에서는 ha당 벼 수량을 현재의 4.9톤 수준에서 8.0톤 수준으로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2). 물론 이들의 주장은 IRRI의 벼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여 주장한 면도 있지만 만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증대시키지 않는다면 2025년에는 세계적인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임을 경고하는 예측이다.

표3. 아시아지역의 1991년과 2025년 벼 재배면적(백만 ha)과 단위수량(t/ha, 벼) 및 총생산량(백만 톤, 벼)

재 배 형	1991			2025		
	면적	ha당 수량	총생산량	면적	ha당 수량	총생산량
관개지역	73.9	4.89	361.6	73.9	8.00	591.9
저 지 대	38.7	2.30	89.2	38.7	3.50	135.5
고 지 대	10.5	1.07	11.2	10.5	1.07	11.2
심수지역	10.0	1.53	15.3	10.0	1.53	15.3
전 체	133.3	3.58	477.3	133.3	5.66	753.9

※ 출처 : Cassman과 Pingalli (1995)

◈ 우리나라의 식량 대책

○ 식량 사정의 추세

우리나라의 양곡 총 소비량은 2008년 현재 약 18,160천 톤으로서 '80년 이후 '96년까지 연평균 약 2.4%씩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총 생산량은 연평균 약 1.4%씩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곡류 자급률은 '65년의 94%, '80년 56.0%, '96년에 26.4%까지 급속히 떨어졌으나 다행히도 '96~ '99년간의 쌀농사 풍년으로 '98년에는 31.7%를 유지하였으나 다시 2004년 이후에는 28%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옥수수, 밀, 콩 등 사료용 곡물의 수입이 해마다 크게 늘어남으로써 우리나라의 곡류 자급률이 매년 낮

아져서 식량용으로 직접 이용하는 쌀, 보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곡인 쌀만은 국민의 식량으로서 자급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의무 수입량 이외의 국내 수요는 자급률 98%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2004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0만ha 이상을 유지하고 ha당 수량을 5.0톤 이상 생산토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생산성은 최근 5개년 평균 5.0톤/ha로서 세계 전체 쌀 생산량의 92%를 점하고 있는 아시아 몬순 지대에서 최고 수준에 있으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년도의 6,053천 톤에서 2008년에는 4,843천 톤으로 매년 평균 6만 톤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쌀 생산량의 감소는 무엇보다도 벼 재배 면적의 감소와 단위면적당 수량성 증가의 둔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표4. 우리나라 양곡 수급 현황

연도	공급량 (천 톤)		소 비 량 (천 톤)					연 말 재고량 (천 톤)	자급도 (%)	사료제외 자급도 (%)
	생산량	수입량	계	식량	가공	사료	기타			
1970	7,097	2,115	8,825	6,863	853	584	525	1,843	80.4	86.1
1975	7,295	3,012	9,926	7,333	970	779	914	2,262	73.0	79.1
1980	7,048	5,051	12,596	6,860	2,072	2,472	1,192	2,179	56.0	69.6
1985	7,102	7,336	14,667	6,800	2,560	4,746	561	2,280	48.4	71.6
1990	7,013	10,022	16,282	6,302	3,291	6,031	388	3,657	43.1	70.3
1994	5,465	13,073	19,530	6,190	3,787	9,157	396	3,019	28.0	52.7
1998	6,122	13,034	19,301	5,890	3,998	8,835	578	2,273	31.7	58.5
2002	9,242	14,576	20,641	5,800	3,955	9,670	1,216	3,177	30.4	58.3
2004	7,701	13,885	18,880	5,560	3,977	8,732	611	2,706	26.8	50.3
2006	7,861	14,099	19,771	5,773	3,731	9,292	975	2,189	27.7	52.7
2008	7,019	13,798	18,160	5,695	3,484	8,405	582	2,660	27.8	51.7

○ 식량 전망 및 대책

곡물 자급률이 30% 이하의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 한국의 식량 공급 문제를 고려할 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쌀 소비 추세로 보아 2004년 쌀 총 수요량을 약 522만 톤으로 추정하였는데 MMA물량 약 20만 톤을 제외한 502만 톤을 생산하기 위해 100만ha의 벼 재배 면적을 확보하여 5.0톤/ha 이상의 단위 수량성을 올림으로써 자급 달성을 할 수 있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의 지속적 자급을 위해서는 벼 생산기반 개선 및 적정 재배 면적의 유지 등 제도적, 정책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토양의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료, 농약의 개발과 이에 부합하는 다수성 신품종의 개발 그리고 병해충 및 환경재해에 대한 재배 안전성 증진 등 과학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 맺음말

세계 식량 사정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부족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몇 나라에 의해 곡물 가격이 좌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지 확대, 다수확 품종 개발, 관개 시설 확충 및 화학 비료 등의 투입 등에 의해 급증하고 있는 세계 인구의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확대와 관개 시설 확충은 미미할 것이고 자본재 투입에 의한 효과가 거의 한계에 달하였기 때문에 급증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일한 희망은 새로운 기술 개발인데 이것만 가지고 식량 수요가 충족될 지는 의문이다.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에 머물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첫째 농지 전용을 억제하여 최소한 논 면적 100만ha 이상을 유지하고, 둘째 겨울철에 놀고 있는 대부분의 논과 밭에 맥류를 재배하여 식량과 사료 자급률을 높이며, 셋째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다.
특히 과학기술 개발에 의한 작물의 생산성 증대 및 재배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작물의 유전자원 확대 이용, 새로운 육종 방법과 추진 체계 면에서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다각적인 활용, 이들의 실용화 연구와 인적자원의 양성에 과감하고도 지속적인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

연재

생활 속의 경제이야기

최 양 기 / 한인뉴스편집위원

금리(이자율)!! 너의 정체를 밝혀봐!!!

"경제" 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가, 가격이고 국가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과제 중 하나도 "가격" 이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많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환을 하며 각자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서로 돕는 사회적 협동이 일어난다.

사회주의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시장가격의 부재로 개개인의 의사가 조정되지 않고 자원이 낭비되며 사람들의 교환활동을 통한 사회적 협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아닌 체제에서도 가격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간섭받으면 사회주의와는 정도가 덜할지라도 가격이 정확한 시장정보를 전달하지 못해 시장이 파괴되고 교환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가격에 대한 간섭이 커질수록 시장정보는 부정확해지고 경제적 조정이 되지 않으며 경제가 퇴보한다. 그러한 실례는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다.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시민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곡물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통제하였을 때 로마에서는 곡물 공급이 줄어 심각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로베스 피에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우유 값을 통제하자 오히려 우유 값이 폭등하여 우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귀족들만 마실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그리고 미국・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가난한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통제했을 때 임대료를 통제했던 국가들에서는 임대료가 크게 올라 쉽게 이사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주택이 관리되지 않아 도시가 황폐화되는 등 "가격통제" 는 당초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가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경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특이한 일은 가격의 일종인 금리(이자율)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장을 위해서, 또는 가계부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리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간섭하면 일반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통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간의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신호를 왜곡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금리(이자율)는 현재 화폐와 미래 화폐 간의 교환비율

금리가 가격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가격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도록 하자. 가격은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 간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화폐경제가 아닌 물물교환경제에서 씨감자 100개가 삼겹살 1근과 교환된다면 삼겹살 1근의 가격은 100개의 씨감자이고, 씨감자 1개의 가격은 삼겹살 1근의 100분의 1인 것이다. 화폐를 사용하는 현실 경제에서 핸드폰 한 대의 가격이 50만원이라면 이것은 핸드폰 한대가 원화 50만원과 맞교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는 '현재의 화폐' 와 '미래의 화폐' 간의 교환비율이다. 5만원권의 시장가격은 5만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의 가격이다. 5만원권을 1년 후에 인도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1년 후에 동일한 5만원권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오늘 5만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1년 후에 5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이자율)가 연10%라면 1년 후에 5만원을 받는다는 약속에

대하여 사람들은 4만5,455원(5만원 / 1.1 = 4만5,455원)을 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금리도 가격인 것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포기하고 미래에 다시 돌려받는다는 약속에 대하여 무엇인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보상이 바로 금리(이자율)다. 한편 차입자가 기꺼이 금리를 지불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래까지 소비를 연기하기 보다는 현재에 돈을 손에 넣어 소비를 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래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시간선호(time preference) 때문에 생기는 가격이다. 따라서 금리는 미래의 돈에 대한 할인(discount), 동시에 현재 돈에 대한 할증(premium)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리(이자율)가 높으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금리가 높으면 저축이 증가하고 금리가 낮으면 저축이 감소한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저축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고 저축이 적어지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며 또 한편으로는 차입이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고 차입이 적어지면 금리가 내려간다.

이처럼 저축과 차입 그리고 금리는 순환적 연결 고리를 갖고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가는 것이 순리이며 이러한 금리의 작용에 따라 경제가 조정되고 성장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후인 미래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 현재 지출을 줄여 저축을 늘이기로 결정한다고 하자. 그러면 저축 증가로 인해 은행에 돈이 쌓이게 된다.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을 늘리기 위해 낮은 금리로 기업체를 유인한다. 즉 금리 하락이다. 제품의 원가 변화와 가격 변화가 생산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듯이 금리 하락은 기업체에게 "차입을 늘려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 시장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간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기업체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원자재 구입을 늘린다.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투자에 들어가는 자원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다. 사실 이 자원(돈)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매출하락을 보는 산업분야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면 매월 저축을 더 하기 위해 사람들이 외식과 의류 구입을 줄인다면 음식점들은 매출이 하락되어 종업원들을 해고해야만 할 것이고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들 역시 수주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는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즉, 외식과 의류 소비를 줄여 저축이 늘어나면 금리 인하를 유발시키고 이렇게 저축된 돈이 성장하는 산업의 투자 자원으로 투입된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와 일반인들의 예금과 다른 자원들이 현재의 소비재로부터 미래의 자본재로 재배치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보다 많은 양의 소비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나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자원(돈,자본재)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의 소비가 감소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현상이 발생한다. 즉, 미래에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해 당분간 절약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발명이나 새로운 자원의 개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보다 많은 것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하여 많은 국가의 정부는 이러한 단기적인 트레이드오프를 인내하지 않으려는 경제정책을 구사하였다. 즉 ,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 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정책을 편 것이다. 그 한 방법이 중앙은행을 통해 금리를 시장수준 아래로 인하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이후 무려 2년 동안 금리를 2%로 동결시켰고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권에서 조차 금리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였지만 금리 2%를 고수하다가 2010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2~3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Baby step 방식으로 0.25%씩 금리를 인상시켜 현재 금리 3%를 유지하고 있다. 언뜻 보면 이러한 낮은 금리가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낮은 금리는 때때로 기업들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시장금리 하에서는 수익성이 없었던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그 장기 프로젝트를 실행하도록 하기도 한다. 낮은 금리는 저축과 투자 왜곡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간선호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

았기 때문에 현재의 소비가 미래로 미뤄지지 않아(즉 저축이 늘어나지 않아) 기업의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돈)의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낮은 금리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이고 현재의 소비를 더 늘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 증가와 사람들의 소비 증가로 인해 마치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조금 더 길게 보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저축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자 기업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국 투자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어 경제는 다시 불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불황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위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데 따른 통화 증가(돈이 돌지 않아 돈을 더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로 인해 심한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도 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를 촉발하여 장기적으로 가계 파산의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 저금리 상황의 또 다른 문제는 엉뚱한 방향으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저축자들은 높은 금리를 원하는 반면, 차입자는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금리(가격)가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저축자와 차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진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저축자는 원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게 되고, 차입자는 자신이 지불하려고 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리게 된다. 이것은 저축자가 받아야 할 소득(이자)의 일부분을 떼어서 차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엉뚱한 방향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전세 대란의 여러가지 원인 중 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예금이자 수입이 매우 낮아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지 않고 월세로 돌려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고 전세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금하기 보다는 월세 수입을 더 선호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저축과 투자를 왜곡하여 경기변동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소득재분배를 일으켜 경제조정을 방해한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위험의 크기가 커 질 수 있다.

돈의 양(量) 즉, 유동성과 금리의 순환고리

원래 돈은 중앙은행에서 재화를 거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수준으로 찍어서 공급한다. 중앙은행에서 경제가 침체라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찍고, 시중에 돈이 넘치면 그 돈은 다시 예금이라는 형태로 은행으로 들어온다. 은행에서는 들어온 돈을 다시 내보내야 하므로 대출을 늘리려고 하지만, 이자를 낮추지 않으면 돈은 은행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할 때에는 은행에 돈이 고일 틈 없이 대출금 형태로 은행 밖으로 흘러 나간다. 이 경우에는 저절로 이자가 올라가고 돈의 값이 비싸지게 된다. 다시 말해 돈을 찍어내면 저절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돈이 부족하면 이자율이 올라간다.

낮은 이자율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벌이기에 좋은 환경이고, 반대의 경우는 나쁜 환경이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문제가 생긴다. 너도나도 돈을 빌려 사업에 나서면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과당경쟁은 수익성을 저하시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시작한 사업임에도 손해를 입는 기업이 늘어나 결국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돈의 양, 즉 유동성의 절묘한 지점은 늘 과잉과 과소를 반복한다.

금리의 정체 그리고 바램

"금리"는 돈을 좋은 방향으로 돌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내를 슬쩍 감추고 저축자와 기업을 유혹하는 아주 다루기 힘든 놈인 것 같다. 똑 같은 금리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는 좋은 놈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나쁜 놈(?)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다루기 힘든 놈이기에 날고 긴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와 금리 정책 입안자들이 현 경제 상황을 놓고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않된다", '아니다.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갑론을박하고 의견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더 헷갈린다. 아무튼 현명한 금리정책으로 모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고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어쨌튼 "금리도 엄연히 가격이다."

별과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김성월 / 수필가, 방송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끄수룹안(귀신)들린 사람들

어른들은 막장드라마라고 울컥 벌컥 욕하면서도 TV앞에 앉아 시청한다. 어린이들은 전설의 고향이 무서워 소름끼쳐도 홑이불 뒤집어 써가면서 끝까지 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도 가까이 다가오면 무서워 기겁하고 멀어지면 다시 와서 또 보는 그런 전통문화놀이(?)가 있다. 커다란 물소가 술에 취한 듯 귀신에 홀려 깨춤(?)추듯 하는 놀이가 반땡안이다.

반땡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들리는 자란께빵(꾸다룸삥)과 비슷하다. 자란께빵 상징동물은 말이고 반땡안은 물소다. 마조빠힛 때부터 전해오는 반땡안의 유래는 호랑이와 소(반땡)가 싸웠는데 천하무적인 호랑이를 소가 쓰러뜨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협동하면 어떤 일이든 이룰 수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한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을 때 몇몇 주술꾼들이 반땡안을 통하여 주술을 퍼뜨리면서 비밀리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바뚜에 가면 집안대대로 반땡안을 지켜 온 이스완디가 살고 있으며 그가 말했다.

수십여 반땡들이 모여 가장 반땡다운 반땡을 뽑는 날이었다. 반땡안은 소의 탈을 뒤집어쓰고 두 사람이 한 마리의 소가 된다. 반땡안에서 백미는 채찍질이다. 긴 채찍을 허공에 휙, 돌려 땅에 내리치면 탁~하며 고막이 나갈듯한 소리가 난다. 빠왕들이 긴 채찍으로 여기도 탁, 저기도 탁, 내리치는 모습이 흡사 지구를 팽이삼아 돌리는 것 같다. 채찍소리를 들으면 반땡들은 흥분하여 사나워진다. 게다가 작고 투명한 머냔을 숯불에 태워 향을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일렁거리는 관중들 틈사이로 반땡들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끄수룹빤(kesurupan)에 걸렸다고 했다. 어떤 반땡은 태우지 않은 향을 꾸역꾸역 씹었다. 채찍과 머냔향 그리고 가믈란으로 시가지 공기는 오염된 듯하였다. 머냔향이 얼마나 역겨운지 나는 머리도 띵하고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났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일까. 멀쩡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장대비가 내리꽂히기 시작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빠왕들은 고삐를 잡은 해 채찍을 땅바닥에 힘껏 내리쳤다. 탁~, 하는 소리가 나자 반땡은 화난 듯이 날뛰다가 서 있는 관중들에게 뒷발길질 해댔다. 다시 한 번 채찍을 탁~하고 땅바닥에 내리쳤다. 고였던 물이 첨벙거리며 반땡 등허리에 끼얹듯이 튀었다. 소스라치듯 놀란 반땡에게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반땡은 고개를 휙 돌려 관중들을 떠받으려고 하자 '으악' 합창하며 우르르 도망갔다. 질밥 쓴 아가씨는 핸드백을 움켜잡으며 뛰었고 뒤로 물러나던 할머니는 산달이 벗겨진 채로 도망갔다. 그러다 반땡이 저 만치 물러가면 다시 우르르 몰려와 서로 잘 보이는 자리에서 구경하려고 몸싸움까지 했다.

사람들은 끄수룹안 된 사람이 자신을 만지면 자신도 끄수룹안에 들리게 된다. 수년 전 말랑에서 수십여 명의 여자들이 끄수룹안에 들린 적 있었다. 수라바야 중학교에서 교정의 고목을 신에게 허락 없이 베었기에 신이 노해서 수십여 명의 여학생들이 끄수룹안에 들리게 했었다. 그때 역시 친구가 수룹안에 들리자 도우려던 친구도 또 친구도 이렇게 하여 수십여 명이 들렸다고 한다.

그중 한 여학생은 말했다. 자신의 머리에서부터 뭔가 쑤욱~ 들어와 전신으로 퍼지는 몸에 힘이 없어 쓰러졌다고 했다. '정신 차려라'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만 자신의 가눌 수가 없고 자신을 누군가 명령하는데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끄수룹안에 들렸을 때 마치 꿈나라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반땡안이나 자란께빵하는 사람은 끄수룹안에서 혼이 귀신이 빠져 나갈 때 잠시 몸이 뻣뻣해지다가 정상이 된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끄수룹안에 들리게 되면 혼이 빠져나갈 때 온 몸이 뒤틀어지며 고통스러워했다. 그 후에도 기력이 너무 빼앗긴 탓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멍하게 허공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반땡안은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바뚜시 몇몇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미 특별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반땡안을 배우면서 구령으로 [오조 두매 소뽀 이로 : 함부로 얕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라고 외쳤다.

반땡안과 자란께빵이나 끄수룹안 된 여학생들을 만난 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귀신(?)같이 잘해야 되겠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고 하지만 경험하길 좋아하는 나지만 끄수룹안만은 해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는 일, 열정으로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일이나 내 삶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고 있을까. 물어본다.

국 적 법 · 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인도네시아 국적에 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에 관하여 질의하는 분들이 종전에는 거의 모두 자영업자들이었으나 근년에 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장기 거주자로 회사의 중직자들의 질의가 늘고 있다. 정년퇴직 혹은 임기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산 인도네시아에 그냥 눌러 사는 것이 바람직하며 눌러 살 바에는 아예 인도네시아에 귀화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귀화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 후에 결정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제도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 기한부 거주허가서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방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일지라도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면 외국인 등록 의무가 있다. 외국인을 감시하는 직무가 이민국에만 있지 않고 경찰서에도 외국인 감시부서(POA)가 있고,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기한부 거주허가서를 받은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경찰청에 신상 신고 의무가 있으며 매년 기한부 거주허가서 기간을 연장 후 이 신상신고증도 연장을 해야 한다. 투자법상에도 내국인에게는 허용되는 많은 업종이 아직도 외국인에게는 투자가 금지되어 있거나 내국인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조건들이 있다.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도상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몇 년 전 실제 있었던 턴키 베이스로 지방자체 단체에 도정공장을 납품했던 한인 기업인의 케이스는 국적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군수의 배려로 프로젝을 성사를 시켰는데 도와준 군수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되고 정적이 다음 군수로 당선되어 전 군수와 한인 기업인을 부정부패척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고 도청소재지에서 자동차로 서너 시간 떨어진 오지 구치소에 6개월 동안이나 억울하게 수감을 당했고, 지방법원에서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온 억울한 케이스이다.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바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사관에서 검찰에 공문을 보냈고 담당 영사를 현지에 보내 도와주려고 노력했으나, 인도네시아 검찰은 왜 외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형사사건에 개입하느냐고 강하게 거부를 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한인 사업가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였다면 대사관의 도움으로 초기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였는대 사건 발생 직전에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어 대사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다. 얼핏 생각하면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면 외국인보다는 더 인도네시아 법의 보호를 더 받고 더 우호적인 반응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현지 실정은 다르다.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받아 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적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민이 되었어도 인도네시아인의 눈에는 그냥 전에처럼 외국인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또 본인 이후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벌써 여러 세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산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게 인도네시아에 민주화가 시작되기 전 까지는 정치, 관계(공무원), 정부, 군인 및 경찰 등 국가 요직에 등용의 문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유익한 점이 적지 않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이다.

1.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

1.1. 법과 정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1.2. 직업을 갖을 수 있는 권리와 인간으로써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1.3. 국방의 권리가 있다.
1.4. 결사, 집회 및 의사 표시의 권리가 있다.
1.5. 인간으로써 천부 기본권이 있다.
1.6. 신앙과 예배의 권리가 있다.
1.7.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1.8.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 문화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1.10.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1.1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

2.1.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타인의 인권 존중 의무가 있다.
2.2.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데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민주사회의 도덕, 종교, 안보,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다.
2.2. 법을 준수해야 한다.
2.3. 국방의 의무가 있다.
2.4. 교육의 의무가 있다.

3. 어떠한 사람이 인도네시아 국민인가?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3.1. 관계 법규 혹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타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적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 국민이 된 자.
3.2.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3.3.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3.4.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3.5.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무국적자 혹은 국적법이 아이에게 국적을 주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
3.6. 합법적인 혼인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한지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
3.7.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
3.8.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로써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혹은 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라고 확인한 아이.
3.9.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출생한 아이로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이 불명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3.10.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갓 난 아이로써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부모가 밝혀질 때까지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다.
3.11.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로써 부모가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행방을 알 수없는 아이.
3.12.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로써 출생국의 국적법이 이 아이에게 출생국의 국적을 주는 경우에도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 국민이다.
3.13. 인도네시아 국적 신청을 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으나 국민으로써 서약을 하기 전에 사망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

4.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되는 자

4.1.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인도네시아 아이로써 18세 미만이며 미혼인 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이라고 고백하는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한다.
4.2. 5세 미만의 아이로써 외국 국적 보유자에게 법원의 허가로 입양이 된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인정한다.

5. 국적법상의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5.1. 속인주의(ius sanguinis) 원칙
혈통주의라고도 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장소와 상관없이 자

동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다는 주의이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출생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출생하던 미국에서 출생하던 인도네시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민이 된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도 인도네시아 국적이 주어지지 않고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원칙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수년 전에 일본 정부가 페루의 실각한 후지모리(Fujimori) 대통령을 일본 국민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일본 국적법의 속인주의 원칙 때문이다.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는 후지모리의 일본 국적이 페루의 법망으로부터 후지모리를 보호해준 속인주의 국적법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다.

5.2. 한시적인 속지주의 (ius soli) 원칙

속지주의는 속인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출생지 국가의 국적이 주어지는 주의이다. 인도네시아는 국적법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인 임부가 미국에 가서 출산을 하는 목적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미국 국적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 한국 국적일지라도 미국 국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건국이 된 나라가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국의 국적이 주어지지 않고, 떠나 온 부모의 조국의 국적이 주어지게 되므로 국가 운영에 큰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민으로 건국된 나라들은 대부분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5.3. 단일 국적 원칙(이중 국적 금지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이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 상실 이유에 해당되면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원래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인동포가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인 실질적으로는 무국적자와 다름없다. 양국의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자동으로 자국 국적은 상실한다 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과 인도네시아 국적,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형식적으로는 한국 국민이자 인도네시아 국민이지만 양국의 국적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국적이며 무국적자는 법률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5.4. 한시적 이중 국적 허용 칙

국적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부모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인도네시아의 속인주의에 의하여 자동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이 주어지고, 동시에, 미국의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 국적도 자동으로 주어져서 인도네시아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가 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미성년자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하나 성인이 되기 전에 반드시 양자택일하여 단일 국적 보유를 강제로 하고 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은 자동 소멸한다.

5.5. 제 원칙

인도네시아 국적법은 상기 기본원칙 이외에 국가이익 원칙, 국민보호 원칙, 국민 평등원칙, 귀화 내용 사실 원칙, 비차별 원칙, 기본권 원칙, 공개 원칙 및 국적 취득 및 상실 공포 원칙을 가지고 있다.

<1회분으로 보내주신 기고문을 지면관계로 2회 분재합니다 – 편집자>

이병수와 함께하는 보험교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손해보험의 개념과 중요한 기본원리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부터는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 순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곁들여 보다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 가입의 장단점?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보험이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굳이 장점을 가려보자면, 손해보험은 사고 후의 '손해복구자금 '을 미리 확보하는 수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후(事後)적인 위험관리방법으로 유일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소를 잃어버린 경우' 보험에서는 '소 값을 보상' 해주지만 다른 위험관리 방법은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다음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뿐이지요.

손해보험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했지요? 우선 보험거래에는 금전이 오고 가는데, 위험 자체와 관련된 손해액의 기댓값뿐만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경비 및 이윤(기대이익)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보험회사가 자선단체는 아니니까요. 또한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도 손해복구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부담액' 또는 '자기공제액' 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 보험금을 공제하게 되므로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지요.

한편으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마음이 놓인 사람들이 위험에 무심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손쉽게 관리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 용어로 '기강적 해이(Morale Hazard)라고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될 수 있는 '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와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지요.

'약자(弱者)' 를 돕는 손해보험?

제1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례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손해보험의 특징을 은행과 비교하여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날씨가 맑을 때는 우산을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산을 돌려줍니다."

지난 3월호 마지막에 인용한 글입니다. 몇 분 정도 기억하고 계실지... 아니 몇 분이나 읽어보셨을지... 이 인용구를 다시 해석하면 보험은 약한 자를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거액을 예금하는 부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를 얹어주고 재산(담보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보다 낮은 금리로 특혜를 주지요. 그러나 보험은 사고를 당한 약자에게 '손해복구자금' 을 줍니다. 은행과 보험의 특성상 당연한 운영방식이지만, 어쨌든 결과는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보험에 관한 한 독자 여러분에 비해서는 '강자(强者)' 에 속한다고 자부합니다. 보험과 보험회사를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 일을 하는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약자인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 들에게 제대로 알도록 약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가격(요율)의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보험의 진정한 가격인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크기가 과다하거나 과소하지 않아야 하지요. 정상수준보다 높거나 낮으면 보험회사나 고객 어느 쪽이든 손해를 가져오고 계약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지요.

둘째, 보험요율의 체계는 단순하면서도 상이한 집단 간에는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합니다. 상이한 집단 간의 동일한 요율체계는 불공평하며 '보험의 역선택' 을 유발하여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게 되지요.

셋째, 보험요율의 구조는 동기를 부여하고 손해예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자동차사고를 자주 유발하는 운전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때...

손해보험을 사행(射倖)성계약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행운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도박과 비슷한 개념이지요. 둘 다 사행성이긴 하지만 물론 도박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첫째, 도박은 없던 위험을 만들어내는 반면 보험은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지만 가입하면 위험이 축소됩니다.
둘째, 도박은 이익을 얻을 수도,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보험은 잘되어도 이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은 자신이 입은 손해 이상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셋째, 도박은 제로 섬 게임이나, 보험은 사고가 많이 날수록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재산의 총액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보험에는 큰돈이 개입됩니다. 즉, 적은 돈을 들여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어 좋지 않은 일이 가끔 생기게 됩니다. 선의의 보험가입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지요. 고의적인 방화, 자해, 살인, 사고의 위장, 자동차사고 발생 시의 편승수리와 같은 사고확대, 사고발생사실을 은닉한 상태의 보험가입 등의 사례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보험계약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경우로, 고의는 아니지만 보험가입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게을리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보험이 없었으면 조심할 사항에 대하여 보험이 있음으로써 주의를 하지 않게 되고, 때로는 주의부족과 고의적인 사고유발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보장성보험!

생명보험이 대개 저축성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은 일부상품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즉, Protection을 주 기능으로 하고 Financing 또는 Saving등은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요.
과거에 저축성이 가미된 상품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보장성보험이 활발하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축성보다 보험료가 작고 모집인의 수당도 작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판매열의가 상대적으로 적게 됩니다.
둘째, 보장성보험이 담당하는 위험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지요. 가령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죽는다는 기분 나쁜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겠지요.
셋째, 계약자들이, 특히 한국인들은, 만기에 '본전심리' 가 작용하여 만기에 한 푼도 안주면(즉 사고가 없으면) 손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요. 그러므로 만기에 얼마간을 돌려주기 위하여 보험료를 미리 더 받는 저축성보험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볼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내고 돌려받지 않는 보장성보험이 더 실제로는 더 경제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월등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한국인들의 감성적인 '본전심리' 에 편승한 때문인데, 사고구조가 상대적으로 계산적(?)인 서구사회에서는 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이 월등히(8할 정도?) 높다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음 시간은 손해보험의 개념과 중요한 기본원리를 짚어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군요. 다음 시간을 끝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의 순으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와 닿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0816-181-3615 / hatibaru@naver.com

일본을 어찌할꼬?

박관구(자카르타안디옥교회 목사)

일본은 근대 이후 망할 뻔 한 경험이 두 번 있었다. 1853년 미국 페리 함대를 앞세운 서구열강의 위협이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945년의 태평양전쟁 패전이었다. 일본은 그 두 번의 위기를 다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특히 태평양 전쟁 패전의 극복은 매우 훌륭했다. 일본은 패전의 잿더미에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1970년대 초 독일을 제치고 제2경제대국으로 도약하더니 1980년대 중, 후반에는 제조업분야에서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정상을 차지했다. 현재는 미국이 주도하는 지식정보사회에 주도권을 빼앗겨 고전하고 있고, 또 신흥 중국의 거센 용틀임 앞에 힘들어 하고 있지만 1989년 무렵의 일본경제는 세계최강이었다. 지금도 일본은 21세기 세계 산업을 이끌어간다는 환경기술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직도 제조업은 세계최강으로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기술이나 부품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품목이 상당수 있으며 어떤 품목은 수출을 할수록 일본에 이익이 되어 대일무역적자가 쌓이는 경제구조를 안고 있다.

한국에는 주로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해소식만 전해져 일본의 자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들 있으나, 기실 일본은 4계절이 뚜렷하고 풍광이 좋으며 어디가나 온천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살기 좋은 섬나라이다. 기후도 오키나와의 아열대에서 홋카이도의 한대까지, 한 시기, 한 국토 내에서 해수욕과 스키가 가능한, 지구촌에서 몇 안 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게다가 건축/패션/아트 등 상위문화는 물론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오락문화, 라면/스시/과자/차 등 식 문화는 세계최고이다.

프랑스의 레스토랑 가이드 <미슐랭>은 도쿄를 세계에서 가장 맛 집이 많은 도시로 분류한다. <미슐랭가이드 도쿄 2008>은 다른 도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모두 150곳의 도쿄식당에 별점을 부여했다. 2위인 파리가 64곳에 불과한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격차가 있는가가 실감난다. 도쿄에는 일본의 전통요리 외에도 전세계의 유명식당과 요리사들이 진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세계인들은 일본을 "Cool Japan!(멋진 일본!)"으로 칭송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 큰 재난이 닥쳤다. 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가 겹쳐진 3중의 재난이다. 사상 최대의 재난과 위기 앞에 일본은 고통하며 몸부림치고 있다. 이번 재난에 대해 언론들은 초토화, 아비규환, 유령도시, 도시가 통째로 사라졌다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 대통령 오바마는 "이번 재앙은 우리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깨닫게 해 준다" 는 문학적 논평을 내 놓았다. 그런가 하면 국내의 어느 유명목사는 "일본 대지진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진단을 내놓았다가 한 진보논객으로부터 "정신병자가 목사질을 하고 있다"는 험한 말을 듣기도 했다. 이런 재난 앞에 우리는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져야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저희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을 살펴야 하며,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난에 대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극심한 재난에 처한 상황에서 보이는 그들의 질서, 인내, 타인에 대한 배려, 희생 등은 세계인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일본인의 의식과 정신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기회에 일본인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사상을 살펴보고 좋은 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일본인들의 기저에는 와(和)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와"는 밥을 입(사람)들이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다”는 뜻이다. 이 “와” 사상은 일본의 건국 이념이자 중요한 가치의 기본이다. 604년 쇼토큐 태자가 일본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17개조를 제정, 반포하면서 제1조로 “와”를 존중하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 이후 일본사회에서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역사인물로 흔히 오다 노부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 쇼군 시대 천하의 지배자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는 늘 사카모토 료마가 꼽힌다. 왜냐하면 그는 대표적 “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사람들이 개인보다는 단체일수록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조화와 단결을 강조하는 “와” 정신에 연유한다. “삐져나온 못은 때려 넣어야 한다”는 일본속담도 바로 이런 사회분위기에서 유래되었다. 일본사회의 큰 현상인 이지메(따돌림)에도 “와”에의 실패에 대한 징벌의 요소가 깃들어 있다.

일본인들에게서 엿보이는 두 번째는 장인정신이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천직으로 알고 혼을 바쳐 하는 성향이 있다. 한번 손을 대면 대를 이어서 최고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이 살아있다. 그러기에 가내공장이나 유명음식점 가운데 100년, 200년 된 곳이 수두룩하며 심지어 500년이 넘은 회사도 39개나 된다. 586년에 창업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찰전문 건축회사인 공고구미도 일본 기업이다. 장인정신에 토대한 일본중소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종업원 6명의 금형 전문업체 오카노 공업은 미국방성 스텔스 전투기에 카본가공기술을 수출하고 있으며 NASA 우주왕복선 안테나 제작에 티타늄 딥 드로잉 기술을 판매하고 있다. 이런 제작소 수준의 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스스로 납득 할 때까지 절대 제품을 납품하지 않는다”는 이들의 말은 장인정신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것이 중소기업 비중이 90%를 넘는다는 일본경제의 힘이다.

세 번째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사무라이 정신이다. 사무라이 정신은 때로는 충(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몸담고 있는 조직에 헌신하고 주군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정신이다. 이것은 쇼군시대 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일본인들의 정신문화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정신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가는 연료만 싣고 적함에 돌진해 자살공격을 시도한 가미카제 특공대도 이 정신에서 비롯됐으며, 패전 후 다수의 전쟁 포로들이 천황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자결을 택해 스러져 간 것도 이 정신의 표현이다. 명예를 더럽혔을 경우 기꺼이 할복을 택하는 일본특유의 현상도 여기에 그 뿌리가 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능 피폭을 무릅쓰고 현장에 뛰어든 원전결사대도 이러한 정신에서 유래된 것이다.

네 번째, 일본인에게는 남에게 결단코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이 있다. 이번 재난에서 나타난 여러 모습들이 여기서 유래한다. 생명이 위태로운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들은 줄을 서서 기다린다. 다른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탈은 물론 새치기도 없다.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사재기 하는 모습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응급구호 현장에서도 더 급해 보이는 사람에게 선뜻 차례를 양보한다. 소리도 지르고 데모도 할 만 하건만 그저 조용히 인내한다. 지난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로 10명의 일본인 관광객이 숨졌을 때도 이들은 통곡대신 그저 흐느낄 뿐이었다. 오죽하면 자신의 죽음조차, 서양인은 자

아의 상실을 가장 두려워하는 반면, 일본인은 자신의 육신의 처리를 남에게 의탁해야 하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정직하다. 일본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처럼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일본에는 소매치기도 없다 한다. 규정을 만들면 지키는 것이 일본사람들이다. 지금도 도로가 망가져 차가 다니지 않는 센다이 도로에서 시민들은 파란 불을 기다렸다가 길을 건넌단다. 별종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시절, 일본에 출장을 갔다. 호텔직원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맡겼는데 혹시 해서 나중을 위해 이름을 물었다. 되돌아온 대답은 "I am Japanese!" 였단다. 참 많은 것을 시사 하는 대답이다!
이렇게 일본인은 훌륭한 점이 많다. 그래서 세계 대다수 나라가 일본인에게는 입국비자를 면제해 준다. 그야말로 세계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일등국민이다. 필자는 목사로서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워진다. 기독교 인구가 천만을 육박한다는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하는 성찰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다. 우리는 일본인들의 이러한 훌륭한 점들을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나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들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다. 그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영토야욕의 본성을 드러냈다. 임진왜란, 러일전쟁, 아시아 침략전쟁, 태평양전쟁 등이 그것이다. 지금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놓고, 러시아와는 쿠릴열도를 놓고 분쟁 중이다.
심지어 이 재난의 와중에도 지난 3/25~27 벨기에에서 열린 "브뤼셀 포럼" 에서는 그 표기를 놓

고 우리와 다투고 있는 동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일본해 : 지구촌에 익숙한 단 하나의 이름" 이란 책자를 제작, 비치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를 연이어 확정 시켰다. 이토 히로부미 5대손이라는 마쓰모토 일본 외상은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넋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 구로다 가쓰히로는 "한국이 이참에 독도를 일본에 양보하고 일본교과서 등에 대해서는 가만있으라" 라는 망언으로 민심을 들끓게 만들었다.
또한 일본은 이번 원전사고를 수습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원전기술자들은 초청해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배척했다. 방사능 물을 바다에 방류하면서 미국에는 사전 통보와 동의를 구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나라에는 한마디 통보도 없었다 한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족속이다. 일본과 연관된 영토문제에는 자주 분쟁이 따른다. 정신대 문제에서 보듯 자국의 과오에 대한 사과와 반성에도 아주 인색한 민족이다. 우리에 대한 일본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매우 무례하고 불쾌하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비열한 속성도 엿보인다. 한마디로 선린이웃과는 거리가 먼 나라다. 우리에겐 "Cool Japan!" 이 아니라 "Ugly Japan!" 이다. 우리는 이 민족을 이웃하여 살아가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일본아! 너희들이 국내에서 그러하듯 국제무대에서도 다른 나라와 평화롭게 사는 "와" (和)의 정신을 발휘해 줄 수 없겠니? 너희들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너희 위상에 걸 맞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수 없겠니? 세상에서도 필요하다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세계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사무라이 정신을 발휘해 줄 수 없겠니? 세계의 약소국들을 대해서도 폐를 끼치지 않고 양보와 배려, 인내를 이루는 지구촌 일등시민의식을 실천해 줄 수 없겠니?

대답이 없네여, 흐이그, 이넘의 일본을 우찌해야 하는고?

全人未踏의 길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도전

송 기 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4월 첫날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가 2,121 포인트를 기록하며, 증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직 낙하(2,085→892포인트)했던 증시가 2008년 10월 바닥을 치고 드디어 2천선을 돌파한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장기 강세론자들이 말하는 1萬선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언급한 5천선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황소가 곰을 이기는 강세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주식시장 활황세 전망에는 국내외 경제요인과 시장내부 수급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작용하고 있다. 국제요인을 보면 중국의 경우 물가급등 우려가 완화되어 금융긴축의 강도가 약화될 것이며, 미국 ·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東일본의 대지진은 인류史 대재앙이지만, 대규모 복구수요 창출로 이어질 경우 일본은 물론 관련국들의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내부적으로 외국인의 바이코리아(Buy Korea)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천선 돌파도 외국인의 한국주식 사랑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국제 요인이나 증시내부의 수급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추세 복귀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 0.2%까지 떨어졌으나, 과감한 재정투자 확대 등 이명박 정부의 위기극복 리더쉽에 힘입어 2010년 6.2%로 크게 반등, OECD 전체 국가중 2위를 기록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실적은 한국 경제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수출 부문의 괄목할만한 성장의 결과이다.

작년도 한국의 수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4,650억불로 세계 7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2009년 세계 9위에서 2단계 상승한 결과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萬 759 달러를 기록, 2007년 이후 3년만에 2萬달러 선을 再돌파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중 세계 10대 부국의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올해도 한국은 수출부문의 好실적이 계속되면서 무역 규모가 1兆달러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세계경제史에서 무역규모 1兆달러 기록은 美(1992년) · 獨(1998년) · 中(2004년) 등 8개국만이 갖고 있는 꿈의 기록이다. 대한민국은 무역 분야에서 9번째의 1兆달러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이같은 성과를 보면 골드만삭스의 2050년 한국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경 한국의 국민소득은 세계 2위, 통일한국의 GDP는 미국을 제외한 일본 · 독일 등 G7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잠재성장률이 5%대로 유지되고 한국의 경쟁력인 첨단산업이 계속 발전한다는 희망섞인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시작한 것이며, 戰後 60여년에 걸친 북한과의 무력대치 상황에서 일궈낸 것이다. 한국 경제발전의 기초로 경제 내부의 역동성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끊임없이 변화하는 혁신의 DNA가 흔히 지적되고 있으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게는 아직도 꼭 넘어서야 할 도전과 반드시 성취해야 할 未完의 과업이 있다. 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열망과 통일한국의 실현 의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는 외부의 도전이 아니라 종북세력의 국론분열과 복지 포퓰리즘 · 지역 이기주의 등과 같은 내부요인들이다. 全人未踏의 길에서 도전은 승전의 패기를 북돋는 축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은 全 국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원전은 안전합니다

자료지원 : 한국원자력문화재단(KONEPA)

1. 日 원전사고, 우리에게 직접피해는 없습니다.

1) 체르노빌 사고 시에도 억측들이 난무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스웨덴간 거리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부산까지와 비슷한 거리(1,100km) 체르노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누출사고를 말합니다. 원자로가 2차례에 걸쳐 폭발하면서 원자로 속에 들어있던 방사성 물질이 원전 주변지역은 물론이고 바람을 타고 인접국인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넘어 스웨덴・독일・영국 등 유럽에까지 날아간 대형 사고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고 직후 22만여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현재까지 2만 5,000여 명이 방사능 피폭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며 반경 30km이내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고 규모가 워낙 컸던 만큼 인접해 있던 벨라루스와 러시아에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흘러들어가 실제 수많은 암환자도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며칠 후 독일・스웨덴 등 유럽지역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환경단체 및 언론에서 이 사실을 부각, 과장 보도하면서 유럽 전역이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환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등 이같은 주장들이 대부분 근거 없는 억측으로 밝혀졌습니다.

2) 스웨덴의 직접적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며칠 동안 바람이 사고지역에서 스웨덴이 위치한 스칸디나비아반도 방향으로 불어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스웨덴 영공으로 날아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에 스웨덴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는 연간 5mSv 정도로 평소(연 2.4mSv)보다 고작 2~3배 증가한 정도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사고가 난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 유입된 방사능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암을 유발했다는 의학 보고나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해를 끼치는 황사가 더 위험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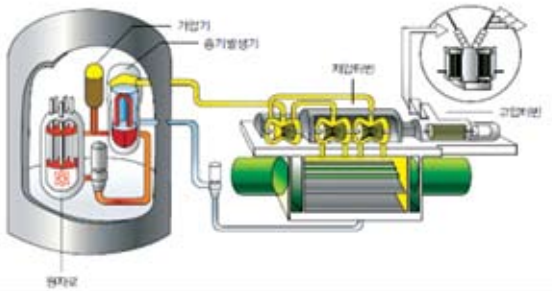
3) 후쿠시마 1원전 6기 모두 폭발해도 우리 영공은 안전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로가 폭발했던 체르노빌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체르노빌과 같은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이 폭발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체르노빌 사고 때는 대형 폭발로 지상 2km가까이 방사성 물질이 치솟아 넓은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나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굴뚝의 연기 모양으로 퍼지고 있어 확산속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스웨덴과 같이 사고지점에서 멀리(1,000km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는 극소량의 방사성 물질만이 검출된다는 의미입니다.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었을 때에도 우리에 대한 영향은 전무

2. '한국형 原電' 은 安全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原電 생산국들은 1986년 체르노빌 原電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설비를 상당수 보강하였는데, 금번 사고原電은 그 이전 시스템이어서 이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시 상대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1基를 운영중이고, 7基를 건설중으로 全 세계 原電 443基(2011.3 기준)중 60%가 채택하고 있는 '가압경수로'를 표준형으로 삼아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압경수로는 원자로와 터빈・발전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피해 확산이 제한적입니다.

* 고리・울진・영광에 17基의 가압경수로형 原電을 운영 중이고, 월성에서는 원자로 냉각수 종류가 다른 가압중수로형 原電 4基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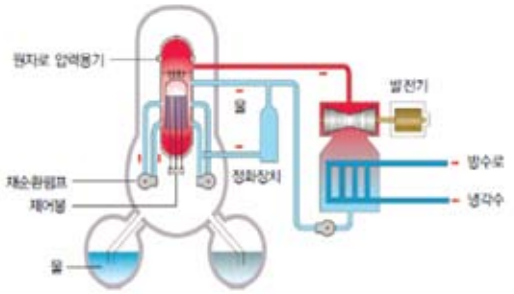
1) 우리는 原電 선진국들을 거울삼아 안전성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한국형 原電은 가압경수로로서 사고原電(비등경수로)과 달리 원자로와 터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核연료의 공기 노출에 따른 수소 발생 및 폭발에 대해 훨씬 안전합니다. 원자로內 核연료(우라늄)가 중성자와 반응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이 열로 물(냉각수)을 가열합니다. 약 320~330℃로 가열된 물은 증기발생기라는 설비에서 외부에 있는 물에 열을 전달합니다. 외부 물은 수증기가 되고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터빈 등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원자로 내부에 있는 물이 수증기화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어 核연료가 공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한국형 原電 개략도 >

반면, 후쿠시마 原電과 같은 비등경수로는 원자로 내부의 물이 직접 가열, 수증기가 되어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냉각수 공급 중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原電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후쿠시마 原電 개략도 >

2) 격납건물이 돔 형태이고, 철심을 보강해 내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직경 1.5cm의 탄소강 철근 42가닥을 꼬아 철심을 만들어 수직 100개・수평 195개 설치

3) 원자로 가열 방지장치 보강으로 폭발 개연성이 희박합니다.

한국형 原電에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지만, 만일 수소가 발생하더라도 수소를 태우거나 再결합시킬 수 있는 수소제거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수소폭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후쿠시마 原電의 경우 비상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냉각수 공급 중단으로 사고 발생

4) 평시 전력공급 중단에 대비한 비상전력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原電에도 비상디젤발전기가 있으나, 쓰나미로 인해 고장 난 것으로 추정所外전력과 비상디젤발전기까지 모두 고장 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별도의 보조디젤발전기(原電 2・4基당 1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5) 잠재적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해일을 모두 고려해 설계하였습니다.

한국 표준형 原電(OPR-1000)은 원자로건물 바로 아래에서 리히터규모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UAE에 수출하는 신형 原電(APR-1400)의 경우 이보다 높은 리히터규모 7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 과거 지진발생 이력・해일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설계하였습니다.

6) 운용 노하우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의 원전 가동률은 93.3%로 원전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89.9%)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원전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59.2%)・프랑스(76.1%)보다 월등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2등급 이상 고장・사고도 2건에 불과, 미국(7건)・프랑스(36건)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원전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UAE 등 세계 원전시장에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7) 국제사회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IAEA는 "한국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전관리로 단 한차례의 중대사고도 없는 안전 모범국"으로 평가하고 있고 OECD도 "우리가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제원전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 일본마저도 "韓國은 3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안전면에서 완벽한 수준이며, 가격경쟁력 뿐 아니라 안전관리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96년 이래 IAEA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우리의 원자력 안전성 평가시 단 한건의 문제제기도 없었다는 점도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전세계적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대안없는 반대보다는 더욱 안전한 원자력 이용방안을 고민하는 냉철하고 성숙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8) 정부는 일본 原電사고 직후부터 비상대응체제를 가동중입니다.

原電 건설・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경부는 3.11부터 국내 原電운영 사업자인 한수원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국내 原電 방사선량 실시간 모니터링 등 파급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후쿠시마 原電 방사성물질 유출에 따른 국내 原電 영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는 지진발생 직후 상황반(반장 : 원자력안전국장)을 구성하고, 日 원자력안전보안원(NISA)과 정보를 공유하며 파급영향을 점검하고 있고,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위기관리대응반을 중심으로 환경방사능 감시주기 단축(15분→5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기(70개소)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으로 방사성물질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관계부처 긴밀 공조아래 즉각 주민 보호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화회관 – 나를 위한, 나만의 공간

아담하고 쾌적한 공간!

평소에 읽고 싶었던 좋은 책들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음미하면서
한인회 문화회관을
나만의 독서실로 이용하세요.

시청각실과 소규모 모임을 위한 장소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안내

시 간

월~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대 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회원 가입은 한인회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대 여

1. 회원증 사본 제출
2. 1인당 도서 2권, 7일간
- 1회에 한하여 7일간 전화로 연기 가능
- 연체 시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 당 1,000루피아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인도웹이 제공하는 교민커뮤니티

인도웹과 한인뉴스가 기사를 공유하는 지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그리고 천천호 예약회원님들 중국어 소모임 天天好(천천호) 준비중인 '춥다오' 입니다. 아래와 같이 천천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 소모임 취지 :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께 노래나 자료 기타 공유를 통하여 교류와 공부에 터전이 되고자 합니다.

나 지역 : 자카르타 지역이 주가 되겠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인터넷이 되는 어디든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다 입회자격 : 중국어 입문하시는 분들, 중수님들의 실력향상, 고수님들의 실력누락방지를 위한 교류, 중국어 노래나 단어, 문장을 알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중국어 자료 구하시는 분들, 전문 번역이나 통역 관심 있으신 분들, HSK준비하시는 분들, 나이, 성별,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 하고 싶은 말 : 부족하지만 중국어라는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먼 타지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교류와 교감의 또 다른 하나의 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모임 규정 중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진입니다. 저와 함께 소모임 잘 이끌어주시고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운영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중국어를 좀 하신 분도 좋고, 아님 전혀 모르셔도 사람 좋아하시고 아끼실 줄 아는 분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좋습니다. 소모임 안에 여러 가지 운영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있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이후 카페의 카테고리와 로고, 이미지, 운영지침 및 운영방향과 또한 홍보성 글도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니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고되겠지만, 하나하나 무에서 유로 이루어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세계와 통하는 실크로드 길 "天天好"를 타고
항해하려고 합니다.

인도웹 114는…

인도웹 114는 인도네시아 내(內) 혹은 외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관련 업체들의 연락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 온라인 전화번호부입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몇몇 업체와 개인의 도움으로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화번호 데이터와 사용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사용 중 불편 사항이나 건의 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는 bagus 메일(bagus@indoweb.org)로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모아 모아서 소중한 정보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인도웹 114 : http://114.indoweb.org/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를 그대로 실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대화창>>>

인천-> 자카르타 구간 가루다 항공에 한국 승무원 있나요??

글쓴이 : bettii (125.166.72.26)
동생이랑 엄마가 여름에 자카르타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여행경험이 많이 없어서요~~
가루다로 할지 대한항공으로 할지 고민이네요
가루다가 더 저렴하긴 한데.....
제가 가루다 취항한지 얼마 안되서 한국갔을때는 한국승무원이 없던데 지금은 한국승무원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서비스는 어떤지.. 최근 이용하신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꽉자바 11-04-20 09:07
한국 승무원있습니다. 또한 한국안내 방송도 해 줌
서비스도 괜아요 음식도 맛나고요! (갈때만 타서 그런가)

요한! 11-04-20 09:20
제가 이번에 왕복 이용했었는데요.
제쪽 라인에는 현지 분이 담당 했었지만 다른라인은 한국분이 있었구요.
한국 신문도 있더라구요 ^^;

즉.. 갈때도 있었고. 올때도 있었어여~

인사랑 11-04-20 17:21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는분은 KAL를 추천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가루다를 추천합니다.
KAL과 가루다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면

가루다의 장점
첫째, 가루다는 비행기 안에서 입국수속을 하고, 입국비자도 인천공항에서 한국말로 하고, 자카르타에 도착하면 블루카드를 들고 나오면 3초면 도착비자 및 입국비자완료됨.. 대한 항공은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없음
둘째, 가루다도 한국 스투디어스가 있고, 음식도 닭요리등 국제 표준 식사가 나오고, 김치도 물론 맛있는 한국김치를 주며, 더 요청하면 추가로 주는데 상냥하게 갖다줌
셋째, 가격이 쌈,, 비지니스 클래스 왕복(자카르타 출발)이 1250달러면 가능함
넷째, 이코노미 석에서 옆자리가 비워 있을때 누워서가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편안함, KAL은 허리가 부딪혀서 옆으로 누워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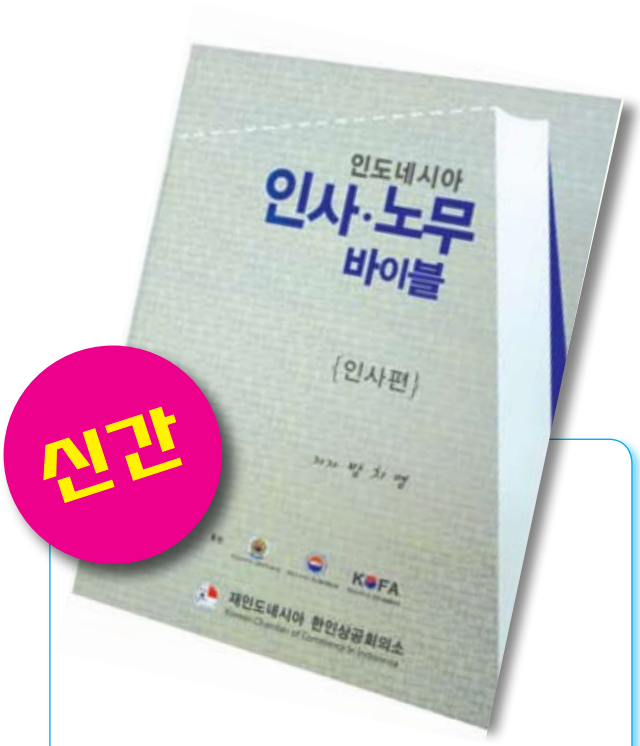
가루다의 불편한 점은
첫째, 출발시에 KAL보다 1시간정도 늦게 도착하고 8시 30분에 도착하여 서울 집에 도착하면 거의 11시가 되어서 오전 업무를 볼수 없는 것이 흠임
둘째, 짐이 좀 오버하면 요금징수를 하려고함,....
셋째, 깔리만딴 상공을 통과시에 좀 심하게 떨리는 경향이 있음, 물론 KAL도 떨리지만 가루다가 더 떨리는 것 같음. KAL은 보잉이고, 가루다는 에어버스임
넷째, 자리에 앉으면, 머리가 붙고 허리는 붕 떠 있어서 불편함. 할수 없이 베개나 담요를 접어서 받쳐야함 한가지 바램은 과거같이 아시아나가 동시에 취항하여 경쟁을 해서, 가격이 과거처럼 싸지고, 목이 뻣뻣한 대한항공의 목을 좀 익은 벼처럼 숙이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

oranganteng 11-04-20 20:14
아시아나 취항에 적극 한 표...독점 노선, 황금 노선이라는 대한 항공에게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겠더군요. 20년 인니 생활에 뱅기 타고 즐거웠던 건 아시아나 들어 와 있었을 때 뿐... 그 넘의 파업 땜에 좋은 시절 얼마 가지 못했죠. 지금이라도 아시아나 오면 당장 그것 타고 한국 가고 싶네요... 싼 가격이 요즘 시절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편집자 :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니 오타가 있을 수 있음>

.....인도웹은 인도네시아의 뉴스부터 문화와 예술, 관습과 언어사전, 다양한 업소 소개, 비즈니스 정보와 여행정보 등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생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관리, Jewelry, 사진이야기, 볼링클럽, 랑콕클럽, 다이빙클럽, 아라리오, UI 국립대, 한길회, 아라테 등 다양한 소모임도 갖추고 있는 가장 활동성이 있는 한인사이트입니다. 또한, 회원카드를 발급하여 40여 개 이상의 인도웹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회원 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회원 다수를 포함해 약 15,000명으로 하루 4천여 회 접속 수를 기록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7월 4일 탄생한지 만 5년이 되는 인도웹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민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뚫을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KTV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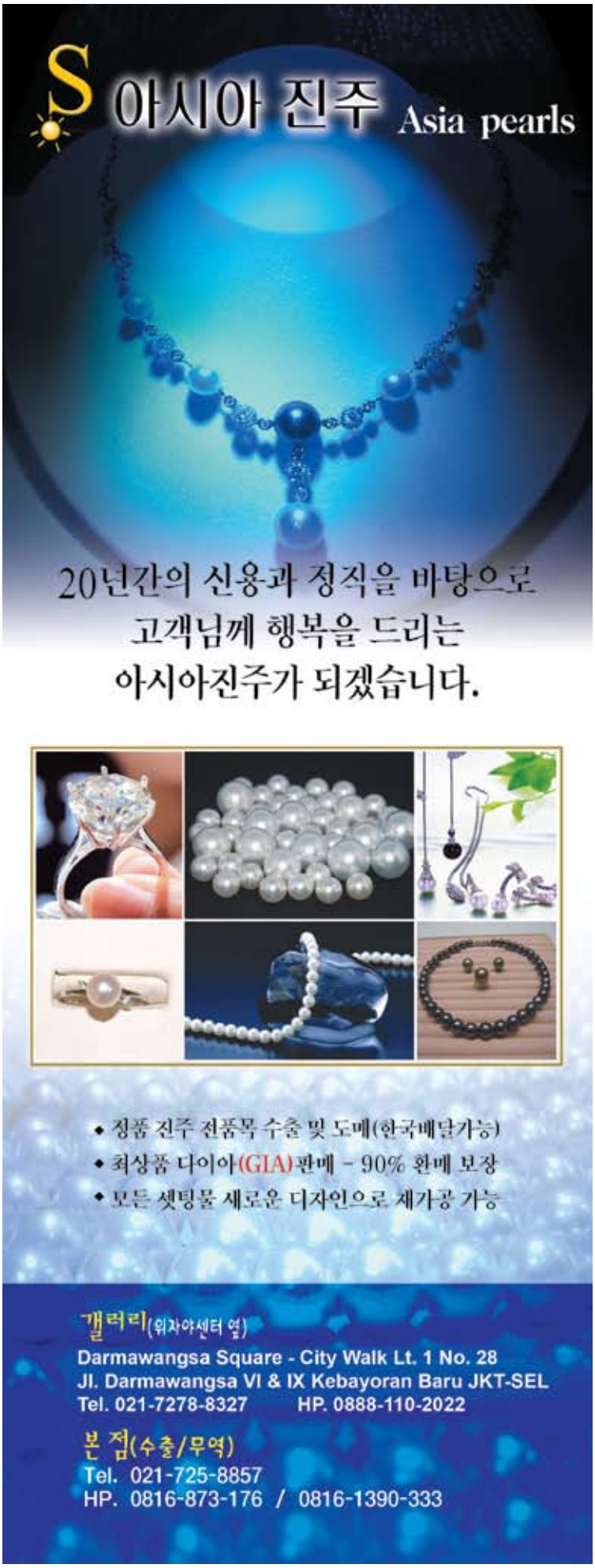


신간

『인도네시아 인사 · 노무 바이블』 - 인사편

발 행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저 자 방치영(회계사)
2011. 4. 1. 양장본, 195×260mm, 400쪽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가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바이블』 - 인사편 을 출간했다. 이 책은 방치영 회계사가 그간 <한인뉴스>를 통해 연재했던 칼럼과 인사/노무에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서식을 담고 있다.
1. 인력의 확보 및 활용 2. 인재육성 및 인사시스템 3 노사관리 4. 기타 5. 단체협약 6. 계약서 7. 각종 인사규정 8. HR양식 등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사례중심으로 인사노무관리를 알기 쉽게 해설해 놓았으며 저자는 "인니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발간의 뜻을 밝혔다. 이 책은 대사관과 한국봉제협의회, 한국신발협의회에서도 후원했다.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92 2500
영사과	2992 303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021 527 2612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땅그랑 한인회	5532 5555
반둥 한인회	022 200 6880
발리 한인회	0361 769 124
버까시 한인회(총무)	0811 847 556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메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땀 한인회	0778 392 014

DAILY KOREA INDONESIA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빨렘방 한인회	
한국 부인회	526 087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2 807 8607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벼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JIMS	744 4864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하나 은행	522 0120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 있는 교회	548 3044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7 7317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교회	4584 -6674
주님의 교회	831 3843
찌까랑 임마누엘교회	8990-3133
참빛 교회	720 0240
한마음 교회	739 5035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죠지언 퍼니쳐	750 6109,766 0364

MATAARI TOUR & TRAVEL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人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德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DOOWANG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광고 문의
521-2515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새로 올리려는 분은
한인뉴스 편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0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붕냐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 황성주 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미용실/피부관리

겔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 한의원	722 7745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향림당한의원	722 1648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찌까랑)	8990 1911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끌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끌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효(세노파티)	5289 7044
가효(끌라빠가딩)	2850 7600
강강수월래	380 5217
강나루(땅그랑)	5576 8222
강촌(땅그랑)	5579 3681
경복궁(찌까랑)	8990 8822
고려가든(스마랑)	(024) 746 4090
고목(찌까랑)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금수강산(찌까랑)	8983 3282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뉴서울(땅그랑)	546 0845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뽄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땅그랑)	552 1210
명가면옥(땅그랑)	552 2745
모나리자(찌까랑)	8990 9570
물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선레이크호텔)	6583 1472
버까시 서울(버까시)	8895 7604
부산횟집(끌라빠가딩)	4585 1156
산들(땅그랑)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싼티카 클라식(버까시)	8459 9282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땅그랑)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 447 414
소양강(찌까랑)	897 2231
송가네 삼계탕(끌라빠가딩)	4585 4422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끌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아랑갈비(찌까랑)	8983 6047
아리랑(찌까랑)	8990 9917
압구정	2905 2925
이스타나 코리아	314 4501
어울림	551 4853
아마(땅그랑)	547 2722
어울(땅그랑)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땅그랑)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수까부미)	4585 1156
원치킨호프(땅그랑)	5577 6770
2002 레스토랑(땅그랑)	5940 4189
장터(끌라빠가딩)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찌까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레아나	390 4568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둥)	(022) 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횟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찌까랑)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끌라빠가딩)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팡팡치킨	720 7275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땅그랑)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성관(끌라빠가딩)	453 3033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끌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끌라빠가딩)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향수	645 237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땅그랑)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Beat Box(끌라빠가딩)	9773 4780
BBQ(끌라빠가딩)	4584 7444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데일리 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7278 0856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5 1628
	5296-0024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증권/보험

동서 증권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하숙집

쉼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뽄독인다	0818 760 747
갈릴리게스트하우스	522 4666
자카르타게스트하우스	724 6347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5292 0911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4586 7844
뽄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쎄드라 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3582 007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한인예총(한상재) 0811 188 612

미술협회(인치혁)	0813 1514 9978
음악협회(이일하)	0815 1150 6664
어린이합창단(김영희)	0815 181 3102
라뮤즈합창단(유지영)	0813 1433 7187
서예협회(손인식)	0815 9369 114
월화차문화원 정연규	0818 183 906
색소폰동우회(강희중)	0816 798 221
문인협회 한상재	(0811 188 612)
문화연구원(사공경)	0816 1909 976
한바패(장방식)	0811 902 003
루시플라워(최정순)	0811 834 026
사진협회엄종한)	0811 177 503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3 0172
환전	712 8556

●골프샵

교민 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 골프샵	546 0838
레네 세계골프	739 8312
한양(끌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 플레이골프	344 2540
MFS 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 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11 85 3156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인니어통역/번역(Mrs.Lee)	021-7432687
	021-9432 2102

발리 (지역번호 0361)

●한인단체

재발리한인회	081-2379-39452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 TOUR	261 105
MATAHARI KORE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754 100
꼬끼 레스토랑	770 256

대사관 임시 청사 안내 더 플라자 오피스타워 30층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n. 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대표전화 021) 2992-2500
대표팩스 021) 2992-3131
영사과직통전화 021) 2992-3030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내ㄴ셔날 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반둥 (지역번호 022)

•식당

뉴캐슬 식당	201 5007~8
명가 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안 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 사우나	201 5007~8
반둥 렌트카	0821 1616 3300
반둥 한인부동산	0858 6011 0777
반둥컴퓨터 A/S	0821 1616 3300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HYUNDAI
Official Partner

PERAWATAN | PURNA JUAL | SUKU CADANG | MESIN | BAHAN BAKAR

7 8 9 +/- +

HYUNDAI Truck

Yang Memberikan Keuntungan Ini Bagi Anda!

Untung! Karena irit bahan bakar

Untung! Karena tak pernah rusak

Untung! Karena dapat perawatan di manapun

HYUNDAI
Truck & Bus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

HYUNDAI

KORINDO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이렇게 멀고 낯선 곳에
왜 포스코는
제철소를 생각했을까요?
세계의 자원을 개발해 풍요롭게 하는 일,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매장량이 많은 곳에 제철소가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철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아프리카, 동북아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더 큰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posco
www.posco.com
PT KRAKATAU POSCO는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철강제품의 자급율을 높이고 신규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더 큰 세상엔
더 많은 포스코가
필요합니다
posco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고,
포스코센터 음악회 이벤트에 참여하세요